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론리학과 심리학의 초보적인 원리는 고등중학교단계에서부터 배워주어야 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심리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심리학의 초보적인 원리를 배워줄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심리학학습을 잘하는것은 우리들의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심리학학습을 잘하면 우선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당정책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고 신념으로 체득할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사상, 감정, 의지의 본질과 그 형성과정을 밝혀줌으로써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당정책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고 신념으로 체득할수 있는 리치와 방법을 가질수 있게 한다.

심리학학습을 잘하면 또한 학습과 과학탐구의 방법을 체득할수 있는 기초를 쌓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지각과 사고, 기억과 상상, 주의과정의 본질과 역할,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 밝혀줌으로써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묘리와 방법을 가질수 있게 한다.

심리학학습을 잘하면 또한 자신과 동무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을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맞게 서로 잘 어울려 생활하고 활동할수 있는 능력을 가질수 있게 된다.

동무들이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행동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에 맞게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가야 보다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동무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조절통제되는가 하는 리치를 배우게 된다. 이런 리치를 알면 동무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대상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고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그러면 《심리학초보》과목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심리학초보》과목에서는 심리학의 초보적인 원리와 지식을 배우게 된다.

심리학은 마음의 움직임의 리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생각, 마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며 그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조절하는가 하는 리치를 배우는 학문이다.

《심리학초보》과목에서는 심리현상들인 지각, 사고, 기억, 상상, 주의, 사상, 감정, 의지, 관심, 흥미, 리상, 성격, 버릇, 지능, 기능, 재능들의 초보적인 원리들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즉 매 심리현상들의 본질과 특성, 형성과정과 역할, 옳은 심리를 가지기 위한 요구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심리학초보》과목학습을 잘하여 강성대국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선군시대 인간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제1장. 지각, 사고

우리는 지각과 사고과정에 자연과 사회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지각과 사고에 대하여 잘 알아야 수학, 물리, 화학을 비롯한 학습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해나갈수 있다.

1. 지 각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은 지각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각이란 무엇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실물을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리해할수 있을뿐만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서 무엇이 결함인가를 인차 찾아내여 고칠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매일과 같이 학교로 오고가면서 출퇴근길에 오른 각이한 생김새와 걸음새를 가진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나, 동생들을 보게 되며 여러가지 형태와 속도를 가진 승용차와 뻐스, 자전거들도 보게 된다.

여기에서 서로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승용차, 뻐스, 자전거 등을 구별해보고 《이 사람은 영남이 아버지이다.》, 《이것은 승용차이다.》라는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지각이다.

지각이란 사물현상을 대할 때 감각기관을 통하여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사람은 우선 사물현상을 대할 때 그것을 일정한 형태를 가진 하나의 대상으로 파악한다. 이것을 지각의 전체성이라고 한다.

지각이 전체성을 띤다는것은 사물현상을 이루는 개별적인 속성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알아본다는것이다.

실례로 생긴 모양과 색갈, 발동기소리와 같은 여러가지 속성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이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뜨락또르이다.》라고 인식하는것이 바로 지각의 전체성이다.

사람은 또한 지각하는 사물현상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그 대상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인차 알아보게 된다. 이것을 지각의 의미성이라고 한다.

지각이 의미성을 가진다는것은 이미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의 영향하에 사물현상을 쉽게 알아보고 리해한다는것이다.

실례로 퉁탕거리는 소리만 듣고도 뜨락또르라는것을 대뜸 알게 되고 밖에서 들려오는 말소리를 듣고도 그가 누구인지 인차 알게 되는것은 이미전에 뜨락또르와 그 사람을 잘 알고있었기때문이다.

사람은 또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도 서로 다른 대상을 먼저 지각한다. 이것을 지각의 선택성이라고 한다.

지각이 선택성을 가진다는것은 사람의 감각기관에 작용하는 모든 사물현상을 동시에 다 똑같은 정도로 선명하게 알아보는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부 사물현상을 먼저 알아보는것을 말한다.

실례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꽃을 구경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서로다른 꽃들을 먼저 지각한다. 즉 어떤 사람은 채송화에, 어떤 사람은 백일홍에, 어떤 사람은 장미꽃에 먼저 눈길을 돌려 지각한다.

지각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각과정은 우선 감각에 기초하여 사물현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받아들이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감각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사물현상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개별적속성들에 대한 느낌이다.

감각기관에는 눈, 귀, 코, 혀, 피부 등이 있다. 감각기관에 따라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피부감각 등으로 갈라볼수 있다. 시각과정에 색갈과 모양, 청각과정에 소리, 후각과정에 냄새, 미각과정에 맛, 피부감각과정에 굳기와 온도 등 개별적속성들을 느끼게 된다.

실례로 사과를 대할 때 우리는 시각과정에 사과의 빨간 색갈과 주먹만 한 크기, 동그스름한 모양을, 후각과정에 향기로운 냄새를, 미각과정에 새큼달달한 맛을 느끼게 된다.

그다음에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느끼게 된 개별적속성들을 하나로 결합시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

로 지각이다.

우의 실례에서 빨간 색갈과 주먹만 한 크기, 동그스름한 모양, 향기로운 냄새와 새큼달달한 맛과 같은 개별적인 속성들가운데서 어느 하나의 속성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사과라는것을 알수 없다.

사람은 빨간 색갈과 함께 주먹만 한 크기와 동그스름한 모양, 새큼달달한 맛과 향기로운 냄새들을 하나로 결합하여야 그것이 사과라는것을 알게 된다.

지각에 기초하여 표상이 이루어진다.

묘향산에서 보낸 즐거운 야영생활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눈앞에는 세계인민들의 뜨거운 지성이 어려있는 귀중한 선물들이 보관된 국제친선전람관, 굽이굽이 딛고올랐던 등산길, 야영소에서 벌어졌던 오락회,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이 생동하게 떠오른다.

이렇게 이미 지각하였던 사물현상이 머리속에서 생동하게 떠오르는 구체적인 형상(모습)을 표상이라고 한다.

사람은 표상을 통하여 사물현상을 마치도 직접 보고 듣는것처럼 생동하게 인식하게 된다.

표상은 사물현상의 본질을 리해할수 있게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표상이 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사물현상을 보지 않고도 그것을 머리속에서 그려보면서 그의 내적속성들과 내적련관관계들을 리해하게 된다.

그런데 표상은 대상을 직접 보는것만큼 생동하지 못하다. 어떤 부분은 희미하게 나타나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분은 잠간동안 떠올랐다가 없어지기도 한다. 표상이 얼마나 생동한가 하는것은 대상에 대한 지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된다.

사물현상에 대한 지각을 목적의식적으로 진행할 때 표상은 보다 생동해진다.

이렇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의도적으로 살펴보는 지각이 관찰이다.

관찰은 반드시 일정한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진행된다. 우리들이 흔히 쓰고있는 찬찬히 본다., 살펴본다., 눈여겨본다. 등과 같은 말들은 모두 관찰의 표현형태이다.

실례로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김정일**화를 피우기 위하여 생육상태와 꽃이 피는데 미치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매일 세밀히 살펴보는것이 관찰이다.

관찰의 특성은 우선 일정한 사물현상을 더 잘 알려는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지각이라는데 있다.

그것은 또한 자기가 세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오래동안 진행되는 지각이라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관찰은 배운 내용을 산지식으로 다져가는 중요한 학습과정으로 된다. 관찰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과학지식을 소유할뿐아니라 그것을 현실에 써먹기 위한 여러가지 실천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관찰을 잘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관찰을 잘하자면 첫째로, 감수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감수력은 감각하는 능력을 말한다.

관찰은 매 감각능력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실례로 매우 낮은 소리를 잘 듣는 학생은 청각감수력이 높다고 말하며 냄새를 잘 맡는 학생은 후각감수력이 높다고 말한다.

감수력을 키우자면 수업시간과 과외소조활동을 통하여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다양한 사물현상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면서 그의 색갈이나 소리, 냄새, 굳기 등의 성질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각기관들의 위생에 관심을 돌려 그것들을 잘 보호하여야 한다.

둘째로, 관찰을 목적지향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정확한 목적과 계획이 없이 생각나는대로 이것저것 보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반드시 알아보아야 할것을 보지 못할수도 있다. 비록 짧은 순간에 진행되는 단순한 관찰이라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 나라의 유전학자인 계응상선생이 세계적인 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비결의 하나는 일찍부터 누에의 알과 고치색갈, 생김새를 관찰할 때에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

기 위하여 피타게 노력한데 있다.

셋째로, 관찰하는 방법을 부단히 익혀나가야 한다.

사물현상을 스쳐보면 구체적인 성질을 잘 알수 없다. 옳은 관찰방법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깐깐히 살펴보아야 그것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뚜렷한 표상을 가질수 있다.

실례로 붕어가 물속에서 헤염치는 모양을 관찰한다면 그저 막연하게 붕어가 헤염치는것을 볼것이 아니라 붕어의 지느러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즉 꼬리지느러미는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가슴지느러미들은 어떻게 움직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을 세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넷째로, 관찰한 내용을 말이나 글로 자주 표현해보아야 한다.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것보다 그것을 언어로 표현해볼 때 더 잘, 더 명확히 인식할수 있다.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자주 글로 써보고 말로 이야기해보는데 습관되면 자기의 관찰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게 되며 부족점을 제때에 발견하고 보충하여 산지식으로 다져나갈수 있다.

문제

1. 해당 감각에 알맞는 감각기관들을 선으로 련결하시오.

시각	코
청각	혀
후각	피부
미각	눈
피부감각	귀

2. 다음 문장에서 감각, 지각에 해당되는 징표들을 찾아내시오.
   ① 사물현상들과 직접 접촉할 때 생긴다.
   ② 사물현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인식한다.
   ③ 사물현상의 개별적속성들을 전체적으로 인식한다.

3. 다음의 글이 지각의 어떤 특성을 표현한것인가를 말해보시오.
   ① 금분이는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소리를 듣고 자기 아버지라는것을 인차 알아맞혔다.
   ② 룡악산마루에 올라서서 복순이는 저 멀리 즐비하게 늘어

선 문화주택을, 조일이는 무연한 벌판을 바라보며 제각기 시상에 잠겼다.

4. 다음의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써서 표상의 개념을 정의해보시오.
   표상이란 [ ] 감각, 지각하였던 사물현상의 [ ]머리속에 [ ] 난것이다.

5. 토끼가 자라는 모습을 정확히 관찰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배운 지식을 관찰로 다져나가도록 이끄시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있은 일이다.

어느날 리과시간에 선생은 개구리알이 개구리로 되는 과정을 배워주었다.

선생의 설명을 들을 때에는 다 알것 같았지만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개구리알이 올챙이로 되고 그것이 개구리로 되는것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한 조건에서 잘 납득이 가지 않았다.

휴식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의문을 가지고 여러 말을 주고받았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여러개의 유리병에 크기가 다른 개구리알과 올챙이 그리고 개구리를 각각 넣어가지고 교실에 들어서시였다.

학생들은 호기심에 끌려 유리병들을 바라보았다.

수업시간이 되여 교실에 들어온 담임선생은 유리병들을 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시였다고 탄복하였다.

학생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그 유리병들을 해빛이 잘 드는 창문가에 가져다놓고 개구리알이 개구리로 되는 과정을 관찰일지를 쓰면서 세심히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개구리성장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게 되였고 교과서나 학습장을 보지 않고도 막힘없이 설명할수 있게 되였다.

뒤늦게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구리성장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주시려고 물이 깊고 바닥이 험한 늪에 며칠동안이나 나가시여 개구리알과 올챙이, 개구리를 세밀히 관찰하시면서 크기별로 하나하나 건져내시였다는것을 알게 된 학생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을 관찰과 실험, 실천을 통하여 자신뿐아니라 동무들도 공고히 다져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2. 사 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다.》

사람은 사고를 통하여 지각으로써는 알아낼수 없는 사물현상의 본질과 법칙을 인식하게 된다.

사고란 무엇인가

우리들이 배우고있는 사물현상의 본질이나 법칙에 관한 지식들은 모두 리치를 따져가면서 깊은 생각끝에 얻어진 사고의 결과물들이다.

실례로 물리에서 배우게 되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어떻게 나왔는가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처음에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한알의 사과를 보면서 사과는 왜 지구밖으로 달아나지 않고 땅에 떨어졌는가, 만일 달에 사과나무가 있다면 사과는 어디로 떨어졌을가, 어째서 달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을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과정에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아내게 되였다.

여기에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것은 눈으로 직접 볼수 있지만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은 눈으로 보지 못한다. 이것을 알아내자면 반드시 머리속에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고이다.

사고란 사물현상의 본질, 법칙을 리치적으로 알아내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지각의 결과에 얻어진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에 기초하여 그의 내적속성, 내적련관들을 알아내는 과정이 사고이다.

본질은 내적속성들가운데서도 그 사물현상을 다른 사물현상과 구별하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며 법칙은 가장 필연적인 련관이다.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속성, 필연적인 련관들을 알아내는 과정이 사고이다.

사고는 우선 머리속에서 리치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진행된다.

사고는 지각과 달리 사물현상이 주어지기만 하면 파악되는 과정이 아니라 지각과정에 얻어진 표상에 기초하여 그것들을 머리속에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따져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고는 또한 이미 가지고있는 지식, 경험이 많을수록 쉽게 이루어진다.

지식과 경험은 사고의 전제이다.

보고 들은것이 많고 아는것이 많을수록 사고는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된다.

실례로 제비가 낮게 날고 개미들이 집을 옮기는 까닭을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알게 된 학생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면 인차 비가 올것이라고 생각한다.

사고는 또한 언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언어가 없이 사고가 진행될수 없다.

언어에는 입말, 글말과 함께 속말도 있다.

간혹 혼자서 무슨 생각을 하다가 저도모르게 중얼거리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속으로만 하던 말이 겉으로 튀여나온것으로서 사고가 언어를 통해 진행된다는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사고가 언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되기때문에 언어소유량이 풍부할수록 그만큼 사고가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되며 정확하게 문화적으로 표현되고 전달될수 있다.

사고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고는 사고조작기능들인 분석과 종합, 비교와 대비, 추상화와 일반화, 구체화와 체계화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사고는 우선 분석과 종합으로부터 시작된다.

분석은 사물현상을 몇개의 부분 또는 속성으로 갈라내는 과정이다.

사물현상은 많은 부분과 속성들을 가지고있다.

사물현상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몇개의 부분이나 속성으로 하나하나 갈라보아야 한다.

실례로 어떤 문장의 의미를 리해하자면 먼저 그것을 이루고있는 매개 단어들의 뜻을 하나하나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분석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사물현상들의 여러가지 내적속성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종합은 분석된 몇개의 부분 또는 속성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이다.

실례로 외국어학습을 할 때 개별적인 단어들의 뜻을 안 다음 그것들을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리해하는 과정이 종합이다.

종합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사물현상의 개별적속성들을 련관속에서 고찰하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분석과 종합에 기초하여 비교와 대비과정이 이루어진다.

비교는 몇개 대상들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이며 **대비**는 대상들간의 본질적차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실례로 물과 얼음의 공통점은 물분자로 이루어져있고 차이점은 하나는 액체이고 다른 하나는 고체라는것을 확정하는 과정이 비교이다.

비교와 대비를 통하여 사물현상들사이의 다양한 련관관계속에서 본질을 옳게 파악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

비교와 대비과정이 끝나면 추상화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추상화는 사물현상이 가지고있는 여러가지 속성들가운데서 본질적인 속성만을 골라내는 과정이다.

실례로 황지주에 대해서 추상하면 지주가 가지고있는 많은 속성들가운데서 이마가 벗어졌다는것, 비단옷을 입고있다는것, 배가 불룩하고 몸이 뚱뚱하다는것 등과 같은 비본질적이고 개별적인 속성들은 없애버리고 본질적인 속성인 많은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착취한다는것만을 골라내는 과정이 추상화과정이다.

일반화는 추상화과정에 얻어진 본질적속성이 그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물현상들에도 있다고 확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실례로《많은 땅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어 착취한다.》는 본질적속성이 황지주만이 아니라 박지주, 최지주 등 모든 지주

들에게도 다 있다는것을 확정하는것이 일반화이다.

추상화, 일반화된 지식은 구체화와 체계화과정을 거쳐야 보다 공고하게 습득된다.

구체화는 일반적인것에 속하는 그 어떤 개별적인것을 알아내는 과정이다.

수업시간에 수학명제나 물리법칙 등을 배우고 그에 기초하여 문제풀이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과정이 구체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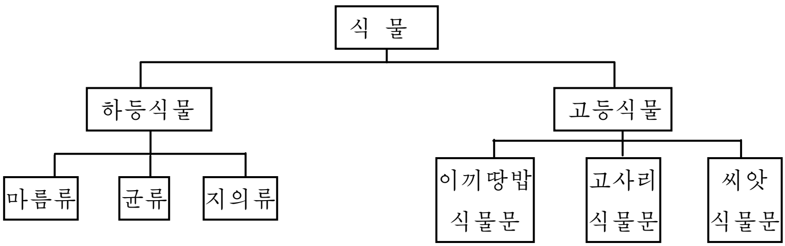
실례로 4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을 배운 다음 자기 학급 교실바닥의 면적을 구해보는 과정이 구체화이다.

사람들은 배운 지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풍부하고 실지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지게 된다.

체계화는 사물현상들사이의 종속관계를 확정해나가는 과정이다.

복습시간에 이미 배운 지식들을 련관관계에 따라 일정한 질서로 배렬하는 과정이 체계화이다.

실례로 식물을 하등식물과 고등식물로 갈라보고 다시 하등식물은 마름류, 균류, 지의류로, 고등식물은 이끼땅밥식물문, 고사리식물문, 씨앗식물문 등으로 갈라보는것은 체계화이다.



체계화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지식을 체계정연하게 머리속에 넣게 된다.

이처럼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사고가 진행되며 그 결과 사물현상의 본질, 법칙들이 인식되고 그것이 공고한것으로 머리속에 습득되게 된다.

이러한 사고활동은 학습의 성과를 이룩하고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근본열쇠의 하나로 된다.

사고를 잘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사고를 잘하자면 첫째로, 사고과제가 제기되면 사고방향을 옳게 세우고 그 방향에서 문제해결의 방도를 찾을줄 알아야 한다.

사고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것은 사고를 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학생들속에서는 같은 시간에 같이 사고하였지만 옳은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사고방향이 옳게 세워지지 못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학생들은 사고과제가 제기되면 사고의 기본줄거리가 설정된 문제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하는데 첫째가는 주의를 돌려야 한다.

실례로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을 받으면 질문의 의도를 잘 알고 그에 맞게 문제해결의 방향을 바로 정하며 그 방향에서 대답을 정확히 하는데 머리를 써야 한다.

둘째로, 사고조작기능들을 능숙하게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어떤 문제의 본질을 밝혀내려고 할 때 사고하는 묘리와 방법을 몰라가지고서는 그것을 보다 정확하게 빨리 해결할수 없다.

따라서 사물현상을 분석, 종합하는 방법, 비교, 대비하는 방법, 추상, 일반화하는 방법, 구체화, 체계화하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능숙히 적용해보아야 한다.

셋째로, 사고의 방향을 민활하게 돌릴줄 알아야 한다.

사고의 방향을 민활하게 돌린다는것은 외곬으로만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에서 폭넓게 사고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방도에는 여러가지가 있기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도를 찾아내자면 사고의 방향을 민활하게 돌릴줄도 알아야 한다.

실례로 수학문제를 푸는 경우 한가지 방법으로만 풀것이 아니라 그것을 푸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몇가지나 되는가, 어느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열쇠는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새로운 풀기수법들을 인차 적용해나갈줄 알아야 한다.

넷째로, 제기된 문제들을 새롭게 해결할줄 알아야 한다.

중학교시기부터 이미 있는 방법에서 벗어나 독특하게 사고하여야 새로운것을 발견해낼수 있으며 이 과정에 사고가 발전하게 된다.

학생들은 항상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왜, 그것과 다르게 생각해볼수는 없을가 라는 식으로 의문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색은 발명의 어머니이다.》
《사색하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라! 그러면 성공할것이다.》
《사색의 태만자는 큰 건달군이다.》

문제

1. 사고의 본질을 학자들의 과학적발견이야기를 실례로 들면서 설명해보시오.
2. 다음의 글들에서 어느것이 사고의 특성을 나타내는 글인가를 가르시오.
   ① 언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② 감각, 지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③ 사물현상의 본질을 찾아내는 인식과정이다.
   ④ 눈에 보이는것처럼 생동한 직관성을 가진다.
   ⑤ 이미 가지고있는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3. 다음의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써서 분석과 종합의 개념을 정의하고 실례를 드시오.
   ① 분석이란 사물현상을 [ ] 부분 또는 속성으로 [ ] 말한다.(실례)
   ② 종합이란 분석된 [ ] 부분 또는 속성들을 [ ] 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례)
4. 다음 대상들의 본질을 밝히시오.
   ① 벽소설, 단편소설, 중편소설, 장편소설
   ② 뉴톤의 3법칙, 전자기유도법칙, 쥴의 법칙
5. 꿀롱의 법칙을 알아내는 사고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과외읽기

여섯살에 발견하신 원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유치원에 다니실 때 셈세기공부시간에 있은 일이다.

어느날 교양원은《하나 더하기 하나》를 배워주었다. 그는 사과, 파자, 연필 같은것을 실례로 들면서 열심히 가르쳤다.

《사과 한알에 또 한알을 더하면 몇알입니까?》

《두알입니다.》

모두가 일제히 대답하였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입니다. 알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어서시여 하나에다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는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교양원도 원아들도 놀라운 눈길로 위대한 장군님을 바라보았다.

《1+1=1》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수식으로 옮겨 외워본 교양원은 하도 이상하여 어떤 때에 그렇게 되는가고 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진흙공작을 할 때 자신이 빚은 진흙덩어리와 동생의 진흙덩어리를 합쳤더니 한덩어리가 되였고 꽃나무에 물을 줄 때에도 물방울이 서로 합쳐지니까 한방울이 되더라고 말씀하시였다.

원아들은《정말!》하고 환성을 올리였다.

교양원은 그만 말문이 막히였다. 교양원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지 한동안 망설이다가 오늘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는 경우를 가르쳤다고 말했을뿐이였다.

그때로부터 썩 후날 우리 나라 사회과학계의 학자들은 하나에다 하나를 더하여도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사상이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리념적원리로 된다고 하나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원리를 발견하신것은 여섯살 때였다.

제2장. 기억, 상상, 주의

사람들의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은 기억과 상상, 주의속에서 더 잘 진행된다.

1. 기 억

지각과 사고의 결과는 기억에 의하여 머리속에 남아있게 되며 기억된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기억이란 무엇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선생님한테서 들은 좋은 이야기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는것중의 하나는 어려서 선생님한테서 보고 듣고 배운것들이다.

중학교 5학년생이 된 오늘에 와서도 유치원이나 소학교때 선군조선의 훌륭한 아들딸이 되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은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또한 수학이나 물리문제를 풀 때에도 수업시간에 배웠던 공식이나 법칙들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기억이란 보고 듣고 체험한것을 머리속에 새겨두었다가 후에 되살려내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기억에 의하여 지각과 사고의 결과가 머리속에 남아있게 되며 기억된 지식은 지각이나 사고를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사람들은 기억의 도움으로 학습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과 실천활동을 벌려나간다.

만일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제대로 할수 없게 되며 모든것을 매일 매시각 새로 배워야만 한다.

기억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억은 새김, 보존, 되살이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새김은 기억의 첫 공정이다.

새김은 보고 듣고 사고하고 체험한것을 머리속에 새겨넣는 과정을 말한다.

실례로 수업시간에 《질량보존의 법칙》을 배우고 그 법칙과 유도과정을 머리속에 새겨넣는 과정이 새김과정이다.

지각과정과 사고과정, 체험과정의 결과 얻어진 표상과 개념, 법칙, 사실자료들은 그 과정과 함께 머리속에 흔적으로 새겨진다. 이렇게 새겨진 흔적들은 머리속에 오래 남아있을수도 있고 인차 사라질수도 있다. 그것은 새김대상자체의 특성에도 관계되지만 중요하게는 새김이 어떻게 진행되였는가 하는데 크게 관계된다.

새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새김에는 우선 의도적으로 품을 들여 진행하는 의도적새김과 생활과정에 저절로 새겨지는 비의도적새김이 있다.

수업시간에 정신을 집중하여 배운 내용을 하나하나 머리속에 새겨넣는다든가 시험을 앞두고 합리적인 묘리를 써가며 집중하여 공부하면서 머리속에 새겨넣는 과정은 **의도적새김**이다. 그러나 영화를 볼 때 흥미있는 장면들이 저절로 새겨진다든가, 거리를 오고갈 때 길가의 특징적인 건물과 나무들이 저절로 새겨지는것은 **비의도적새김**이다.

새김에는 또한 뜻을 알고 새기는 의미적새김과 뜻을 모르고 새겨넣는 기계적새김이 있다.

학습할 때에 뜻을 모르고 덮어놓고 졸졸 외우는것은 **기계적새김**이며 하나하나 리치를 따져가며 충분히 리해한 다음 새겨넣는것은 **의미적새김**이다.

실례로 영어문장을 새겨넣을 때 문장의 문법적구조와 뜻을 원리적으로 리해하고 새기는것은 의미적새김이지만 문법적구조와 문장의 뜻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그대로 외우는것은 기계적새김이다.

의미적새김은 머리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오래 가지만 기계적새김은 인차 사라진다.

때문에 뜻을 가지지 않는 전화번호나 콤퓨터암호열쇠, 일정한 시기와 년대, 산높이와 바다깊이, 령토넓이 등을 표시하는 복잡한 수자들도 새기기 쉽고 뚜렷한 흔적을 남길수 있게 외우기 쉬운 말로 바꾸어 의미를 붙여가며 새겨넣어야 한다.

실례로 《3355515》로 된 수자는 《삼삼오오 떼를 지어오시오.》로, 《π=3.14159…》로 된 수자는 《삼일사일오구》로 외우기 편리하게 변화시켜 새기면 쉽게, 뚜렷하게 새길수 있다.

기억의 두번째 공정은 보존이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잊을수 없는 사람》,《잊지 못할 전우》등 여러가지로 잊지 않는다는 말을 쓰고있다. 잊지 않는다는것은 한번 알았거나 본것을 머리속에 두고두고 간직해둔다는 말이다.

보존은 머리속에 새겨진 내용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해두는것을 말한다.

아무리 많은것을 새겨넣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지식은 축적될수도 없고 되살이될수도 없다.

그러므로 보존은 되살이의 전제로 된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은 흔히 머리속에 그대로 보존되기도 하고 변화되여 보존되기도 한다. 다시말하여 구체적인 자료는 빠져나가고 본질적인 알맹이만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미 가지고있는 지식, 경험과 결합되여 보다 풍부하게 보존되는 경우도 있다.

새겨진 내용이 보존되지 않고 사라지는 현상을 **잊음**이라고 한다.

잊음은 새김후 즉시 시작되여 하루동안에 대부분이 잊어지고 점차 떠지게 된다.

때문에 학습한 내용을 이미 가지고있는 지식, 경험과 밀접히 결부하여 보다 풍부하게 보존하기 위하여서는 복습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기억의 세번째 공정은 되살이이다.

되살이는 보존하고있던 내용을 필요할 때 떠오르게 하는 과정이다.

수업시간 선생님의 물음에 전날 배운 내용을 끄집어내거나 시험시간이나 문답식경연에서 이미 새겨넣은 자료들을 생각해내는것이 바로 되살이이다.

되살이의 성과는 곧 기억의 성과로서 사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억의 도움에 의하여 지각도 사고도 발전하게 되며 활동을 이루는 모든 동작의 련결과 속도가 보장되게 된다.

사람은 되살이를 잘해야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설계도 잘하며 일도 막힘없이 척척 잘해나갈수 있게 된다.

기억을 잘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억을 잘한다는것은 자료를 빨리, 정확하게 새겨넣고 오래동안 정확히 보존하며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되살려낸다는것이다.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새김을 잘하여야 한다.

새김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따라 기억의 효과가 나타난다.

새김을 잘하자면 우선 보다 정확하게 빨리 새겨넣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여 새겨야 한다.

훌륭한 기억의 첫째가는 비결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어떻게 이악하게 달라붙는가 하는데 있다. 새기기 힘든 자료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새겨넣었다가 써먹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집중하여 새기면 마지 못해 새겼을 때보다 효과가 크다.

또한 뜻을 알고 새겨야 한다.

뜻을 알고 원리적으로 새긴 내용은 오래동안 보존될뿐아니라 실천활동에도 효과적으로 써먹을수 있다. 시험때 가서 힘들게 외우지 않고도 쉽게 공부하여 높은 성적을 받는것은 바로 원리적으로 뜻을 파악하고 머리속에 잘 새겨넣었기때문이다.

또한 눈으로만 보면서 새기지 말고 듣기도 하고 읽고 써보기도 하면서 여러가지 감각기관들을 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한자나 외국어단어, 문장을 새길 때에는 읽어도 보고 쓰기도 하며 듣기도 하면서 새기는것이 좋다. 이밖에도 새기기 쉽게 자료를 함축하거나 변화시켜 새긴다든가 음악적선률과 결합시켜 새기는 등 여러가지 합리적인 새김수법들을 널리 리용하여야 한다.

둘째로, 새긴 자료들의 잊음을 막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잊음은 우선 새긴 직후에 시작되여 그때 제일 많이 잊어지며

그 후에는 점차 잊어지는 량과 속도가 떠지는 특성을 가진다.

일부 학생들은 열성껏 외우고 선생님에게 검열을 받으려는 순간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는것으로 하여 자기 머리를 탓하며 안타까와한다. 이렇게 새긴 직후에 잊어먹는것은 누구에게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잊음은 또한 앞부분이나 마감부분보다 중간부분이 쉽게 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

시험공부할 때 앞부분이나 뒤부분보다 중간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는것은 그 실례로 된다.

많은 자료를 잊어먹지 않고 정확히 보존하자면 우선 새긴 직후 다시 여러번 새겨야 한다. 그날 배운것을 그날로 반드시 복습하면 품을 적게 들이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오래 보존할수 있다.

또한 중간부분의 내용을 보다 정확히 반복하여 새기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셋째로, 련상의 원리를 리용하여 되살이를 잘하여야 한다.

련상은 되살이과정에 그와 련관된 다른 대상들이 련달아 떠오르는 심리현상이다.

모든 사물현상들은 언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내용적으로 서로 련관되여있다.

때문에 련상의 원리를 리용하면 머리속에 보관된 자료들을 실토리가 풀리듯이 하나하나 제때에 되살이해낼수 있다.

련상에는 린접련상, 류사련상, 대비련상 등이 있다.

린접련상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련관된것들이 련달아 떠오르는 현상이다.

눈을 감고 대동강에 대하여 생각할 때 주체사상탑 혹은 옥류교가 동시에 떠오르는것이 린접련상이다.

류사련상은 류사한 다른 대상들이 련달아 떠오르는 현상이다.

생물시간에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오리를 볼 때 게사니, 소나무를 볼 때 잣나무, 진달래꽃을 볼 때 철쭉꽃이 련달아 생각나는 것이 류사련상이다.

대비련상은 정반대되는 다른 대상이 련달아 떠오르는 현상이다.

무더운 여름을 생각할 때 그와 반대되는 추운 겨울이 련달아

생각나는것이 대비련상이다.

련상의 원리를 잘 리용하는것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어가면서 학습하는것이 좋다고 하는것은 그 대상에 주의를 돌리게 할뿐아니라 책에서 동그라미나 밑줄을 그은것들이 해당 내용을 되살릴 때 함께 련상되여 그 내용을 쉽게 되살릴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이처럼 기억을 잘하자면 그 어느 한 공정만이 아니라 새김, 보존, 되살이와 같은 모든 공정을 정확하게 거쳐야 한다.

문제

1. 기억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시오.
2. 다음의 문장들이 새김의 어느 종류인가를 밝히시오.
   ① 동생 수현이가 부르는 노래 《매매 염소야》를 듣군 하던 수철이는 수영장으로 가면서 저도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흥얼 불렀다.
   ② 유치원에 다니는 내 동생 옥이는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면서도《아, 야, 어, 여 …》라고 가갸표를 외우기도 하고《2×2=4, 2×3=6…》라고 하면서 구구표를 외우기도 한다.
3. 다음의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써서 훌륭한 기억의 징표를 만드시오.
   ① [   ] 머리속에 [   ] 넣는것
   ② [   ] 않고 머리에 [   ] 보존하는것
   ③ [   ] 때에 정확하게 [   ] 하는것
4. 물리법칙들을 잘 기억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과외읽기

점심시간에 생각해내신 60여명의 항일혁명렬사들

대성산혁명렬사릉건설이 한창이던 때 관계부문 일군들이 고심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릉에 안치할 혁명렬사들을 확정하여 보고드려야 하겠는데 좀처럼 문건을 완성할수가 없는것이였다.

해방전에 희생된 항일혁명렬사들뿐아니라 해방후 사망한 투사들까지 포함하여 아는껏 안을 잡은 대상이 30~40명정도였는데 그것도 겨우 이름만 적어놓은 대상이 태반이였다.

아무리 간단히 한다고 해도 난 날, 난 곳, 사망년도정도는 밝혀야겠는데 해방전에 희생된 렬사들에 대해서는 거의나 아는것이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문건이 완성되지 않아 안타까와하는 일군들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다가 자신께서 오늘 점심시간에 잠을 안자고 혼자 생각해낸 사람만 해도 6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숱한 일군들이 머리를 짜고 문헌고를 뒤져가면서 여태껏 안을 잡은 대상이 기껏 30~40명에 불과한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하루 점심시간의 단참에 60여명의 렬사들의 이름과 함께 난 날, 난 곳, 사망년도, 혁명참가년대 지어 전사한 날자와 장소까지 생각해내시였던것이다.

참으로 산천이 변하고 강산이 뒤바뀐 그 세월의 풍상속에서도 혁명전우들의 생의 자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비상한 기억력에는 한계가 없으시였다.

2. 상 상

대기념비적건축물들과 과학적발견, 발명품들은 다 인간의 창조적사색과 함께 상상과정에 마련되는 결과물들이다. 《광명성1》호에 이어 또다시 우리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세계를 경탄시킨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과학자, 기술자들의 높은 정신세계와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사색과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상상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작가는 장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느끼고 상상하면서 인물들의 사상감정과 심리상태, 그들의 호상관계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혁명소설을 읽으면서 소설의 주인공의 정신세계와 투쟁모습을 그려본다든가 력사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고구려사람들의 생활모습과 유적유물들을 그려보는것, 새로운 벼종자를 그려보거나 앞으로 펼쳐질 강성대국의 참모습을 그려보는 과정 등은 다 상상과정이다.

상상이란 아직 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한 사물현상들을 이미 가지고있는 표상과 지식에 기초하여 머리속에서 그려내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상상은 우선 상상하는 사람이 아직 체험해보지 못한 사물현상을 그리는 과정이다.

이미 창조되여 세상에 존재하고있는 사물현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물현상을 그리는 과정이 곧 상상과정으로 된다.

실례로 물리수업시간의 여러 계기들에서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계과학자들의 일화는 흔히 누구나 알고있는 내용이지만 학생들에게는 처음 알게 되는 내용인것만큼 그때 그들의 머리속에서 발견, 발명가들의 탐구세계를 그리는 과정은 하나의 상상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상상은 또한 이미 형성된 기억표상들을 개작하는 과정이다.

상상이 그 어떤 사물현상에 대한 표상을 머리속에 그리는 과정이라고 하여 현재 지각하면서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과 이미전에 새겨넣었던 표상들을 되살이하는 과정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즉 상상표상은 지각과정에 얻어지는 표상과 새김과정에 얻어지는 기억표상이 아니라 개작수법에 의하여 그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표상이다.

상상은 또한 사고과정과 밀접히 결합되여 진행되는 과정이다.

사고과정을 떠나서 상상과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기억표상들을 개작하는 과정은 사고의 도움이 없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가지고있던 표상들을 개작하자면 그것들중에서 어느것이 새로운 형상의 요소로 될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분석, 종합하고 비교, 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적중한것들을 골라내는 추상화와 일반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바로 이러한 사고조작과정에 이미 알고있던 여러가지 표상들을 개작하여 새로운 형상, 표상들을 형성하게 된다.

상상은 크게 재구성적상상과 창조적상상으로 갈라볼수 있다.

앞으로 세계적발명가가 되여 인류를 위해 더 많은것을 창조하자면 창조적상상력을 키워야 하며 창조적상상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창조적상상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창조적상상은 기발한 착상으로부터 시작된다.

착상은 부단히 사색하고 탐구를 거듭하던 끝에 드디여 새로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머리속에서 그려내는 상상과정이다.

실례로 18세기초 도이췰란드의 옴이 옴의 법칙을 세상에 내놓게 된 과정을 보자.

중학시절부터 전기에 흥미를 가졌던 그는 실험실에서 무엇인가 탐구하기를 좋아하였다.

하루는 전류의 세기가 무엇에 관계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 고심하던 끝에 지친 피로를 풀려고 라인강반을 거닐게 되였다.

유유히 흐르는 라인강물결을 유심히 바라보던 그는 머리속에서 무엇인가 갑자기 섬광처럼 번쩍이는감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이 바로 전류의 세기의 비밀을 알아낼수 있는 실마리, 새로운 형상이였다.

(저 강물의 흐름량은 물의 높이차에 좌우된다. 그렇다면 전류의 량은 전위의 높이차와 관계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과 함께 전류가 전위차에 의해 변화되는 현상이 하나의 그림처럼 떠올랐다.

바로 그런 형상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실마리, 열쇠였다.

이처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그려내는 과정이 착상과정이다.

착상과정은 문제를 리해하고 고심어린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순간적으로 강한 정서적충동과 함께 일어나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창조적상상과정의 성과를 담보해준다.

창조적상상은 구상과정에 이루어진다.

구상과정은 착상에서 얻어진 실마리에 기초하여 문제해결의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새로운 대상을 그려내는 상상의 기본과정이다.

구상과정에 널리 쓰이는 수법은 표상개작수법이다.

표상개작수법에는 결합법과 강조법, 전형화법과 옮김법이 있다.

결합법은 한 대상의 일부 특징을 다른 대상의 일부 특징과 결합하는 방법이다.

배의 일부 특징들과 땅크의 일부 특징들을 결합하여 물로도 가고 땅으로도 가기 편리한 그 어떤 물건을 그려보는것이 결합법에 의한 상상과정이다.

강조법은 어떤 대상에서 일정한 부분이나 특징들을 확대 또는 축소시키는 방법이다.

아동영화《소년장수》에서 나오는 주인공이 힘이 세다는것을 두드러지게 형상하여 그리는데서 강조법이 많이 쓰이였다.

전형화법은 여러 대상들이 가지고있는 특징들가운데서 가장 훌륭한것들만을 골라서 하나의 형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작가가 수많은 로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훌륭한 특징들을 골라서 혁명성, 당성, 조직성, 규률성 등을 지닌 시대의 전형으로 그리는것이 전형화법에 의한 상상과정이다.

옮김법은 어떤 대상에 다른 대상의 속성들을 옮겨서 새로운 대상을 그리는 방법이다.

새의 모양과 기능을 그대로 옮겨서 로보트나 비행기를 그려내는 과정을 실례로 들수 있다.

창조적상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창조적상상을 잘하려면 첫째로, 상상의 자료로 될수 있는 생동하고 풍부한 표상들을 가져야 한다.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대한 생동하고 풍부한 표상을 가지지

않고서는 상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없다.

풍부한 표상을 가지자면 많이 보고 듣고 기억하며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생활체험도 많이 해보아야 한다.

학생들은 자연에 대한 관찰도 많이 하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답사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도 자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참고서적들을 통하여 풍부한 지식과 상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영화나 연극, 미술작품들에 대한 감상도 많이 하여야 한다.

둘째로, 표상개작방법들을 잘 알고 상상대상의 특성에 맞게 능숙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아무리 새로운 형상을 구상하려는 의욕이 강하고 정력적으로 달라붙는다 해도 구상하는 방법을 모르면 상상과정이 힘들게 진행되고 그려지는 내용도 보다 빨리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선 표상개작방법들인 결합법과 강조법, 전형화법, 옮김법 등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능숙하게 적용해나가야 한다.

또한 표상개작방법들을 리용하여 세계적인 발명가,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발견과 발명들을 하였는가를 많이 알고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구체적인 실례자료들과 함께 표상개작수법을 환히 꿰뚫고 필요한 계기마다에서 능숙하게 적용할수 있다.

셋째로, 과학적상상과 창작품발표회 같은 여러가지 실천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보다 높고 훌륭한 상상과정은 사고력과 함께 상상력에 의해 촉진된다.

학생들은 학교들에서 진행하는 착상경연, 창작품발표회와 전시회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과학적상상력을 부단히 키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과학적인 환상, 현실에 발을 붙인 상상력이 없이는 과학의 미래를 그려볼수 없으며 과학자체를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문제

1. 기억표상과 상상표상의 다른 점을 말해보시오.
2. 다음의 문장들에서 재구성적상상과 창조적상상을 찾고 그 근거를 말해보시오.
   ① 명철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지난날 머슴살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작농들과 머슴군들을 착취하던 배뚱뚱이 지주놈을 상상해보았다.
   ② 원남이는 생물수업시간《유전과 변이》를 배울 때 호박만큼 큰 감자알을 상상해보면서 앞으로 꼭 농학박사가 될 결심을 지니였다.
3. 아동영화들에서 강조법과 옮김법을 적용한 실례들을 5개이상 찾아보시오.
4. 미래의 자기 모습을 상상해보고 그 내용을 말해보시오.

과외읽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조선식환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주체50(1961)년 여름 어느날 광물표본이 들어있는 나무상자 셋을 드시고 지질공학을 전공하는 어느 한 학생의 집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전에 사람들은 새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녔으면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 환상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한 결과 드디여 하늘을 주름잡아 새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더 멀리 날수 있게 되였고 오늘은 달나라에 가겠다던 꿈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과학적인 환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가설이 세워지고 그것이 다년간의 고심참담한 연구와 거듭되는 실패와 성공을 거쳐 하나의 위대한 학설로, 과학적인 정설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환상은 과학도들이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가는 상상의 나래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수많은 과학적인 환상과 가설들이 사색과 탐구의 시련을 거쳐 하나의 정설로, 위대한 발명으로 빛을 뿌리고 장엄한 현실로 전환되여온 과학기술발전

의 력사와 그 전망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심오하고도 통속적인 말씀을 새겨들으며 그 학생은 흡사 크나큰 환상의 나래를 펴고 아득한 미지의 세계, 과학의 상상봉에로 치달아오르는듯 싶었다.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생각에 잠기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감동에 휩싸여있는 그 학생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며 그러면 우리 과학도들은 어떤 환상을 해야 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학생에게 환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에 발을 붙인것이여야지 공중에 뜬것이 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현실, 조선의 땅에 발을 붙이고 과학적인 환상의 나래를 활짝 펼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그 학생은 마음속으로 환성을 올리였다.

조선식환상!

우리 나라의 현실에 발을 붙인 과학적인 환상!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향방없이 허공을 헤매이던 그의 환상이 들어서야 할 옳은 길이였다.

3. 주 의

주의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의시간에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강의내용을 파악하는데 정신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는다든가 선반공이 일을 할 때 헛눈을 팔지 않고 집중해서 제품을 깎는것, 달리기선수가 출발선에 섰을 때 출발신호를 기다리며 신호총소리에 정신을 집중하는 현상은 주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주의란 일정한 대상에 정신을 돌리고 집중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주의는 집중성, 지속성, 범위, 분배, 전환과 같은 여러가지 속성을 가진다.

주의의 집중성은 한 대상에 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돌려졌는가

를 나타낸다.

실례로 수학문제풀이에 온 정신이 쏠렸을 때 옆에 누가 와도 감촉하지 못하거나 텔레비존에서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열심히 보는 동생이 형님의 독촉에 대답을 못하는것은 다 주의집중상태를 보여준다.

주의의 지속성은 한 대상에 주의를 얼마나 오래동안 돌렸는가를 나타낸다.

실례로 재미나는 소설책을 얻으면 밤이 깊어 새벽이 되도록 흥미있게 책을 보는것을 들수 있다.

주의범위는 짧은 순간에 주의가 돌려지는 대상의 수를 말한다.

실례로 거리에 나붙은 구호를 읽을 때 유치원 어린이들은 한글자한글자 지각하면서 띠염띠염 읽고 그 내용을 리해하지만 소학교 학생들은 구호의 전체 글자를 단번에 지각하면서 류창하게 읽고 빨리 리해한다. 이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소학교 학생들보다 주의범위가 좁다는것을 보여준다.

주의분배는 동시에 몇개의 대상 또는 여러가지 동작에 주의를 돌리는가를 나타낸다.

실례로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학습장에 정확히 쓴다든가, 자동차운전사가 정황을 판단하고 처리하면서 운전을 하는것 등은 다 주의분배가 잘된 상태이다.

주의전환은 한 대상으로부터 다른 대상으로 정신을 얼마나 신속히 옮기는가를 나타낸다.

실례로 체육시간에 흥이 나서 뽈을 찼지만 다음 시간에 인차 외국어학습에 정신을 집중하는것은 주의전환이 잘된 상태이다.

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의는 일정한 조건이 보장될 때 이루어진다.

주의는 우선 사람들의 자각과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주의는 일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꼭 해내겠다는 자각을 가질 때 발생하며 마지막까지 인내성을 발휘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지속된다.

수업시간에 정신을 집중하여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완전히 소

화하겠다는 자각을 가진 학생은 슬며시 몰려오는 졸음도 이겨내고 그 어떤 외부적자극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또렷또렷한 눈동자로 선생님의 설명에 열중한다.

주의는 또한 의식적인 노력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외부적자극의 강도와 급격한 변화,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과 같은 심리적특성들이 작용할 때 주의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조용히 앉아서 공부할 때 밖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나면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돌린다. 그리고 동무들과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 강한 빛과 소리, 특이한 색갈과 냄새 등에도 저도모르게 정신이 돌려진다.

이때 돌려지는 주의상태는 다 외부적자극에 의한 현상들이다.

흥미와 관심을 가진 대상들에도 주의가 저절로 돌려진다.

흥미있는 책일수록 사람들의 주의를 더 많이 끌며 흥미있는 과목일수록 그 수업시간에 주의가 더 잘 보장된다.

주의는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해주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의는 우선 사람들의 인식활동의 성과를 보장한다.

인식활동들인 지각과 사고, 기억과정들은 다 주의가 잘 보장될 때 훌륭히 이루어진다.

시험공부를 할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면서 하루종일 휴식도 없이 책을 들여다보는것은 정신을 집중해서 1~2시간 공부하는것보다 성과가 적다.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자기의것으로 만들자면 선생님의 설명을 명심해 듣고 직관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자체로 깊이 사고하여야 한다.

주의는 또한 사람들의 실천활동도 원만히 보장한다.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단순한 놀이로부터 어른들이 진행하는 로동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천활동은 다 주의의 도움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집중된 주의상태를 보장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집중된 주의상태를 보장하자면 첫째로, 학습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자각적으로, 의식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모든 활동에 목적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만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주의를 보장하게 된다.

학생들은 학습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똑히 알고 공부를 잘하여 꼭 위대한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인재로 자라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이악하게 학습활동을 벌려나가야 한다.

둘째로, 일상적인 학습과 생활과정에 정신을 집중하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세살적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때문에 일상적으로 학습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눈여겨보면서 깊이 사색하고 심사숙고하여 행동하는 습성을 키워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눈과 귀, 손을 동시에 쓰면서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하는데 습관되여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면서 설명에서 기본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새겨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생님이 강조하는 내용을 받아쓰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중심적인 내용들을 찾아보고 그것을 학습장에 쓰기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필요한 주의력을 키울수 있게 된다.

셋째로, 주의상태를 방해하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우선 주의의 집중을 방해하는 주의의 산만을 없애야 한다.

주의의 산만은 주의가 여러 대상들에 무질서하게 분산되는것을 말한다.

주의의 산만은 주로 주위환경의 영향과 많이 관련된다.

실례로 공부할 때 책상우에 여러가지 책들이 무질서하게 놓여있으면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공부할 때에는 책상우에 이것저것 놓지 말고 꼭 필요한 책, 필요한 학용품만을 준비하여 주의를 산만시킬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야 한다.

또한 주의의 지속성을 방해하는 주의의 외전을 막아야 한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딴 생각을 하

거나 장난을 하는것은 다 주의가 외전된 표현이다.

주의의 외전은 의식적인 노력에 의하여 극복되게 된다. 수업내용에 의식적인 주의를 돌리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할 때만이 주의의 외전을 극복하게 된다.

문제

1. 주의의 본질과 그것이 사람들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서 노는 의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다음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어떤 주의인가를 밝히시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남이는 수학시간에 숙제로 내준 문제를 푸는데 열중하였다. 텔레비죤에서 흥겨운 노래소리가 울려나왔으나 그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문제풀이를 계속해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우뢰소리와 함께 대줄기같은 비발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는 돌연히 창문을 내다보게 되였다.
3. 다음의 글들에서 주의의 속성들을 갈라내시오.

   ① B. C. 3세기 그리스에는 아르키메데스라는 이름있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가 속해있는 시라쿠사성이 로마군에게 함락된것도 모르고 모래우에다 선을 그으며 기하문제를 풀고있었다.

   ② 학교에 들어서니《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원수님의 참된 아들딸이 되자!》라는 구호가 한눈에 안겨왔다.

   ③ 자동차운전사는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의 운전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면서 건늠길을 오고가는 사람들의 움직임도 주의깊게 살펴본다.

   ④ 체육수업을 마치고 휴식시간에 정신을 가다듬은 나는 련이어 시작된 력사시간에 온 정신을 집중하였다.
4. 과외학습을 할 때 집중된 주의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외읽기

위대한 장군님의 집중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중학이전시기부터 내각사무국 도서실에 다니시면서 아무 책이나 한번 드시면 마지막페지가 번져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정열적으로 학습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책을 보시였는가 하는것은 이 도서실에 남기신 다음과 같은 일화를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어느날 저녁이였다.

퇴근하여 식사를 하고나서 친척집으로 가던 한 도서원은 자기네 도서실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을 보게 되였다. 도서원들이 모두 함께 퇴근했었는데 아마 누가 볼 일이 있어 다시 도서실에 나간 모양이라고 그는 짐작하였다.

그런데 웬일인지 불빛은 좀처럼 꺼질줄을 몰랐다.

한시간, 또 한시간 …

친척집에서 볼 일을 보고 밤늦게 돌아오던 그는 의아함을 금치 못하였다.

왜서인지 자기네 도서실의 불빛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밤새도록 누가 무엇을 할가? 혹시 퇴근할 때 그냥 나온것이 아닐가 …전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그는 집에 가서 도서실열쇠를 찾아들고 문을 나섰다.

도서실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서가쪽을 찬찬히 살피던 그는 깜짝 놀랐다.

천만뜻밖에도 서가들이 늘어선 맨 끝쪽에 앉아 책을 읽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뵙게 되였던것이다.

그날 오후 도서실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하였던 도서원이 일이 있어 먼저 들어가다나니 다른 도서원들은 장군님께서 서고에 계신줄도 모르고 그냥 퇴근했던것이다.

도서원이 황황히 위대한 장군님께 다가가 세상에 이런 실책이 어디 있는가고 사죄의 말씀을 올렸다. 그제서야 책에서 눈길을 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연을 아시고는 몹시 놀라와하시며 주인들이 다 퇴근한줄도 모르고 책을 보고있었댔다고 오히려 미안해하시는것이였다.

도서원은 안절부절하다가 이렇게 말씀올렸다.

《우리가 떠들썩거리며 퇴근할 때 어째서 알리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자신께서는 책을 읽는데 정신을 팔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재삼 량해의 말씀을 하시였다.

도서원은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단 독서를 시작하시면 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실 정도로 주의를 집중하신다는것, 그래서 자기들이 장군님께서 방에 계시는줄도 모르고 퇴근하는것과 같은 실수를 하였다는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였던 것이다.

제3장. 사상, 감정, 의지

인간의 정신적풍모는 사상, 감정, 의지가 하나로 어울려서 특징지어진다.

1. 사 상

사상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상은 사람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합니다.》

사람은 사물현상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의 립장에서 볼 때 리로운가, 해로운가를 따져보며 그에 대한 일정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진다.

여기에서 사물현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심리현상이 인식이라면 그에 대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는 심리현상이 사상이다.

사상이란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담은 심리현상을 말한다.

제12차 국제학생로어올림픽경연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은 2개의 최우수상과 7개의 1급상장, 2개의 2급상장을 수여받아 단연 종합 1위를 하였다.

그러면 그들이 경연에 어떤 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였기에 이런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단연 1등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것이 그들이 자각한 최대의 요구였고 그로부터 이 경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참가하여 평상시에 련마해온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기때문이였다.

사상은 우선 사람들의 요구를 담는다.

요구라는것은 필요한것을 자각하고 지향하는 마음이다. 먹고 입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것을 절실히 느끼고 지향하는것도 요구이며 동무들과 함께 어울려 진행하는 집단생활을 필요한것으로 느끼고 지향하는것도 요구이다.

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개인적요구는 건전하고 고상한 집단적요구와 일치되여야 훌륭한 요구로 될수 있다.

사상은 또한 사람들의 리해관계를 담는다.

리해관계는 어떤 현상이 자기 또는 집단과의 관계에서 볼 때 얼마나 리롭고 해로운가를 나타낸다.

리해관계는 요구에 기초한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요구를 지닌 학생은 교과서와 학습장, 교실과 책상을 비롯한 교구비품들을 더없이 귀중한것으로 보고 그것을 애호관리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자기의 학습장과 책가방을 망탕 다루고 그것이 못쓰게 되여도 크게 가슴아파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옷차림과 머리단장을 하는데서도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에 대하는 리해관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사상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공고화되는가

사람들이 사회현상에 대한 일정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자기의것으로 만들기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심리적단계들을 거치게 된다.

사상은 우선 사회현상의 본질을 인식하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된다.

사회현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에 대한 자기 또는 집단의 요구와 리해관계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본질파악은 생활체험과 교양, 학습활동과정에 이루어지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것은 단순한 학구적취미나 탐구심때문만이 아니였다고,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틔우려고 책을 파고든것이 아니였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책에서 찾고싶었다고 쓰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각성되였다고 하시였다.

사상은 또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하는 태도를 체험하는 과정에 형성되게 된다.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그것이 자기 요구에 맞으면 긍정적인 태도를 체험하고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태도를 체험한다. 즉 공감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반대하고 증오하는가 하는 태도를 체험한다.

일상생활에서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것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고 쉽게 알수 있다.

사상은 또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는 단계를 거쳐 기본적으로 형성되게 된다.

각오와 결심은 활동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도를 찾으며 어떤 조건에서도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려는 굳은 마음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사상이 보다 확고한것으로 되게 된다.

사상은 부단한 학습과 실천과정속에서 더욱더 공고화되고 점차 신념과 의지로 전환된다. 신념과 의지로 간직된 사상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변심을 모르는 정신세계를 지닐수 있게 한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언제나 변함없이 만수대언덕에 모셔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정성껏 관리하는 학생소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바로 신념화된 사상정신세계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사상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사상은 우선 사람들로 하여금 고상하고 건전한 정신적풍모를 지닐수 있게 한다.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따라서 참다운 정신적풍모를 지

닌 인간이 될수도 있고 리기적이고 저렬한 인간으로도 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사람의 참모습은 결국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람에게서 사상을 빼놓으면 빈 허울뿐이라고 쓰시였다.

오늘 혁명적군인정신이 모든 사회성원들이 따라배워야 할 선군시대의 기본정신으로 되고있는것도 바로 그 기초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깔려있기때문이다.

사상은 또한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 추동한다.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사상은 사람들의 활동을 적극 떠밀어주고 발동시키지만 반동적이고 반혁명적인 사상은 사람들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학생들이 강성대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해보겠다는 훌륭한 사상을 지니게 되면 중학시절부터 애써 배우고 파고드는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과학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다.

혁명적인 사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세상에는 여러가지 사상이 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담은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릇되게 담은 반동적인 사상도 있다. 우리가 간직하여야 할 사상은 혁명적인 사상이다.

혁명적인 사상을 간직하려면 첫째로,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담고 그 실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사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다. 주체사상, 선군사상에는 사물현상을 옳바로 보고 대하게 하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 있으며 삶의 목표를 바로세우고 끝까지 실현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가 있다.

학생들은 주체사상, 선군사상학습을 체계적으로, 원리적으로 파고들면서 깊이있게 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로, 혁명적인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야 한다.

사람은 실천활동과정에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그것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사상정신적으로 단련되고 더욱 굳세여진다.

한번 형성된 사상은 고정불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상은 일생동안 실천속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셋째로, 반동적인 사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반동적인 사상과의 투쟁은 한마디로 말하여 자기가 받아들인 주체사상, 선군사상과 반대되는 사상과의 치렬한 투쟁이다.

이 투쟁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당의 사상이 제일이고 위대하다는것을 체득하게 되며 그의 커다란 생활력과 정당성을 심장으로 간직할수 있다. 이와 함께 반동적사상의 본질과 해독성을 똑똑히 알게 된다.

우리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이색적인 사상과의 투쟁을 끊임없이 벌려나가는 과정에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상에 의해 평가된다.》

《사상은 인간의 풍격을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며 자주적인 인간의 풍모는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담보된다.》

《사상이 투철하고 견결하면 애써 배우고 파고드는 독학가, 정열가가 되며 사상이 견실치 못하면 배움을 게을리하는 건달군이 된다.》

문제

1. 사상이란 무엇인가를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2. 사람들의 활동에서 사상과 지식이 노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말해보시오.
3.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길은 하나이다》를 읽고 투사선생님이 어떤 사상을 가지게 되였는가를 말해보시오.
4.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여덟살에 터득하신 사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여덟살 되시던 해에 3.1운동에 직접 참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것을 처음으로 보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류혈을 처음으로 목격하시고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시였다.

그때를 회고하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만세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칼을 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수 있다는것, 민중이 총칼을 들고 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는 사상, 공산주의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님의 사상이 자신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였다고 하시였다.

2. 감 정

감정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감정과 정서는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자체를 반영하는 인식과는 달리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심리현상이다.》

우리는 생활과정에 끝없는 환희와 격정, 기쁨에 휩싸이기도 하고 슬픔과 비분에 잠기기도 하며 치솟는 격분과 증오로 치를 떨기도 한다.

감정이란 생활과정에 사물현상에 대한 태도를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등으로 나타내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하루도 변함없이 달리는 사랑

의 콩우유차를 볼 때마다 우리는 저도모르게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는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느낀다.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기뻐하고 어쩔줄 몰라하며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감정이라고 한다.

감정은 우선 다른 심리현상들보다 즉시 표현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걸으로 인차 드러나는 심리가 감정이다.

실례로 외국어학과경연에서 자기때문에 학급이 1등의 영예를 지니지 못하게 되였을 때 저도모르게 즉시에 느껴지는것이 수치감이다.

자기가 어떻게 시험쳤던가를 다시금 되새겨보려는 생각보다도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수치감을 순간적으로 마음속에서 느끼는것은 바로 감정이 즉시 표현된것이다.

감정은 또한 서로 반대되는 쌍을 가진다.

서로 반대되는 쌍은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것으로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감정은 기쁨, 사랑, 만족 등이며 부정적인 감정은 슬픔, 증오, 불만족 등이다. 이러한 감정들의 쌍은 동시에 체험되기도 하고 련달아 교체되면서 체험되기도 한다.

조선예술영화 《꽃파는 처녀》에서 꿈결에도 그리며 애타게 찾던 오빠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났을 때 꽃분이는 이루 말할수 없는 기쁨과 오빠를 다시 보지 못하고 끝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슴터지는 슬픔을 함께 체험한다. 이것은 감정의 쌍이 동시에 체험되는 대표적실례이다.

이와는 달리 조선예술영화《한 녀학생의 일기》에서 주인공 수련이가 체험하는 아버지에 대한 상반되는 감정은 오해와 원망으로부터 점차 리해와 공감으로 바뀌여지면서 체험된다. 즉 안타깝게 기다렸건만 좀처럼 성공의 소식은 날아오지 않고 중병에 걸린 어머니가 수술받는 시각에조차 나타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경멸의 감정, 공장에 찾아갔건만 볼반공처녀에게 《쩔쩔매는 한심한》 아버지에 대한 허무한 감정이 영화의 마지막 성공장면들에 가서는 리해와 공감, 존경과 기쁨의 감정으로 변화된다.

감정은 또한 일정한 축적과 계기가 있어야 폭발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서거는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망국의 설음을 한꺼번에 폭발시키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감정은 또한 뚜렷한 생리적변화를 일으킨다.

감정은 다른 심리현상들보다 얼굴표정과 몸가짐, 맥박과 호흡 등에서 매우 뚜렷하고 다양하고 섬세하게 표현된다.

환희와 격정에 휩싸일 때에는 맥박수가 빨라지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웃음과 기쁨의 눈물도 흘리게 된다.

슬플 때에는 얼굴표정이 흐려지고 침의 분비가 멎으며 목이 마르기까지 한다.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감정은 우선 구체적인 생활이 펼쳐질 때 발생한다.

혼자 조용히 있을 때보다 동무들과 교제도 하고 재미나게 뛰여놀기도 하고 토론과 론쟁도 하며 열심히 공부도 할 때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들이 발생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체험이 많을수록 감정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다양해진다. 따라서 생활을 감정발생의 바탕이라고 한다.

감정은 또한 일정한 요구와 리해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

생활이 펼쳐졌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구가 없으면 감정이 발생하지도 않으며 꼭같은 생활환경속에서도 요구와 리해관계가 다르면 서로 다른 감정을 체험하게 된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3장 2경에서 나오는 노래《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하늘중천 밝은 달은 하나이건만
땅우에서 보는 사람 서로 달라라
어떤 사람 달을 보고 즐거워하고
어떤 사람 달을 보며 서러워한다

여기에서 보는것처럼 같은 달을 보면서도 사람들의 서로 다른 리해관계에 따라서 그 순간에 체험하는 감정은 서로 다르다.

감정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정은 우선 공고한 사상을 지닐수 있게 한다.

그 어떤 사상도 감정과 결합되여 정서적충동과 공감의 계기가 마련되여야 확고하고 공고한 사상으로 전환될수 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리수복영웅의 사상정신세계는 강도일제를 쳐물리치고 조국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흠모감, 자기 고향산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결합되여있었다.

감정은 또한 동무들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집단의 공고한 단합을 이룩하게 해준다.

동무들사이에는 감정이 메마르고 무뚝뚝한 동무들보다도 다정다감하고 친절성이 넘치는 동무들과의 교감이 더 잘 이루어지고 친밀해지며 나아가서 집단의 단합도 공고해진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무서운 식량난과 강추위, 계속되는 일제와의 싸움속에서도 춤도 추고 노래도 불렀으며 산판에서 씨름도 하고 고향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나누면서 락천적으로, 다정다감하게 생활하였다. 때문에 사령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에 충실성과 동지애, 사랑의 감정이 차고넘치였으며 유격대는 언제나 강철같은 대오로 천만대적을 물리칠수 있었다.

고상한 감정을 가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고상한 감정은 사회와 집단의 리익에 부합되며 그 발전을 추동하는 훌륭한 감정이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고상한 감정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들이다.

고상한 감정을 가지자면 첫째로, 옳바른 사상을 지녀야 한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상이 고상한 감정을 낳는다.

그것은 감정이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마음속으로 느끼는 과정이기때문이다.

따라서 고상한 감정을 가지자면 혁명적이고 건전한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사상을 지녀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사상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이며 집단주의사상이다.

우리 당의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해야 선군시대 인간이 지녀야 할 건전하고 고상한 감정을 가질수 있으며 선군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저도모르게 그와 대치되는 부르죠아적이며 이색적인 사상감정에 빠질수 있다.

둘째로, 보람있는 생활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보람있는 생활, 건전한 생활일수록 건전한 감정을 체험할수 있다. 대고조의 봉화로 들끓는 현실속에 새롭고 참신한 생활들이 있고 그러한 생활속에서 고상하고 건전한 감정들이 맥박친다.

학생들은 언제나 보람차고 아름다운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로,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풍부하고 다양한 정서들을 체험하여야 한다.

음악과 미술,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정서를 키워주는 좋은 활동이다.

사람은 혁명적인 소설도 읽고 노래도 부르며 시도 읊고 춤도 추며 그림도 그리는 등 다양한 문화정서생활과정에 건전하고 풍부한 감정을 지니게 된다.

실례로 음악에서의 선률, 미술에서의 선과 색갈이 밝고 어두운것, 진하고 연한것 등은 미세한 감정정서적차이들을 뚜렷이 표현해준다. 이러한 미세한 표현들에서 사람은 눈으로 볼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분노 등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 정서들을 느끼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정서가 메마르고 딱딱한 사람은 인간을 열렬히 사랑할수 없다.》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알찬 열매를 바랄수 없듯이 정서와 랑만이 없는 생활에는 윤기가 없으며 그런 생활에서는 삶의 기쁨도 느낄수 없고 투쟁의 열정도 나올수 없다.》

문제

1. 다음의 글에서 어느 대목이 감정을 표현한것이고 어느 대목이 인식과정을 표현한것인가를 찾고 그에 기초하여 감정의 본질을 말해보시오.

 2월 16일이 가까와오는 어느날 봄윤이네 반 동무들은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을 찾았다.

 그들은 전국각지에서 정성껏 키운 **김정일**화를 생물수업시간에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꽃줄기, 잎, 꽃송이들의 생김새와 구조 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관찰하였다.

 참으로 붉은 노을처럼 타는듯 한 빨간 꽃들은 보면 볼수록 황홀하고 우아하며 아름다운 정서를 한껏 느끼게 하였다.

 그들은 온 세상 사람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끓어오르는 격정과 숭엄한 감정에 저도모르게 휩싸였다.

2. 혁명가극《당의 참된 딸》에서 주인공 강연옥이가 체험하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그리는 감정의 축적과 폭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해보시오.
3. 5점을 맞았을 때 자기 감정상태가 눈과 얼굴표정을 통하여 걸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생동하게 말해보시오.
4. 동무를 사랑하는 감정을 지니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체험하신 상반되는 두 감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니실 때 길림시내에 거주하거나 류하, 홍경, 무송, 화전을 비롯한 독립군의 본거지들에 있으면서 정의부 본부에 들락날락하던 아버님의 친구들인 오동진, 손정도, 량세봉, 장철호, 현묵관 등 많은 사람들로부터 재정적후원을 받으시였다.

사실 그 당시 강반석어머님의 하루수입이란 삯바느질을 해서 벌어들이시는 5~10전정도의 보잘것 없는 돈이였다. 하루 10전씩 버시는 때라야 한달에 3원

의 돈을 쥐시는데 그 3원이라는 금액은 육문중학교가 제정한 한달 학비와 맞먹는것이였다.

어머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학비를 보내실 때에도 돈을 절약하시느라고 우정국신세를 지지 않으시였다. 수공료를 받으시여서는 한달 월사금이 될만큼 푼푼이 모아두시였다가 길림으로 가는 인편이 있으면 보내주군 하시였다.

인편을 통해 돈을 받으실 때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두가지의 상반되는 감정을 느끼군 하시였다. 하나는 학비가 왔으니 망신을 면하게 되였다는 다행스러운 감정이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께 월수입의 전부를 보내주고 집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가 하는 걱정스러운 감정이였다.

3. 의 지

의지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의지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행동을 일관하게 지향시키는 정신적능력입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은 비록 나이는 어려도 참으로 의지가 강한 소년들이였다. 목운식소년도 바로 그런 아동단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어느날 그는 짚신속에 비밀쪽지를 감춰가지고 통신련락을 가다가 길청령경비막앞에서 적들의 문초를 받게 되였다.

온몸을 샅샅이 뒤지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던 적들이 목운식소년의 왼쪽발에서 짚신을 느닷없이 벗기려는 순간 그는 일각의 여유도 없이 문초하던 자위단원을 밀치고 경비막안으로 뛰여들어가 부엌아궁이에 바른편발을 다짜고짜 밀어넣었다. 바른쪽짚신에 비밀쪽지가 들어있다는것을 간파한 적들은 아궁이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그러나 목운식소년은 온몸에 내려지는 뭇매를 당하면서도 부엌돌을 힘껏 그러안고 불속에서 발을 뽑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짚신도 타고 발도 타고 솜바지가랭이도 다 타버리였다.

적들이 병원으로 떠메고가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목운식소년의

가슴에 주사침을 놓으면서 비밀을 뽑아내려고 하였으나 그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까지 비밀을 굳건히 간직하였다.

항일의 불바다속에서 자라난 우리의 수많은 소년영웅들, 나어린 렬사들은 아직도 부모들의 보호를 받으며 천진란만하게 자라야할 나이였지만 이처럼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미래를 락관하며 죽는 순간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의지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면서 목적을 끝까지 달성하게 하는 정신적힘을 말한다.

목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는 언제나 예견치 않았던 애로와 난관이 가로놓이게 된다. 이러한 난관과 애로들은 평탄하고 순탄한 나날에 발휘되는 보통정도의 정신적힘으로는 이겨내기 어렵다. 이것을 뚫고나가게 하는 정신적힘은 바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일관하게 끝까지 견지하게 하는 인내성과 완강성, 강의성이며 그 어떤 애로와 난관에도 겁먹지 않고 통이 크고 배짱있게 일판을 벌려나가게 하는 용감성과 대담성이다. 바로 이러한 정신적힘이 의지이다.

항일무장투쟁시기 그처럼 참기 어려운 굶주림과 추위, 절망과 슬픔, 온갖 정신적 및 육체적고통을 이겨내게 한것은 혁명적신념과 락관주의와 함께 강철같은 의지였다.

의지는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지는 우선 사람들의 사상과 품성이 공고하게 형성되도록 한다.

의지가 약하면 사상이 흔들리고 신념이 변질되게 된다. 일부 학생들이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지 못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만 살며 투쟁해나가겠다는 사상이 강의한 의지에 의하여 안받침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

의지가 강해야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의 침습을 막게 되며 고상한 품성도 끊임없이 완성시켜나갈수 있다.

의지는 또한 사람의 행동을 끝까지 견지하고 조절통제한다.

일단 결심하고 시작한 행동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까지 수행하게 하는것이 바로 의지이다.

(어떻게 하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가?)라는 하나의 생

각을 지니고 끝까지 성취하려는 굳은 마음,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였기에 우리 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속에서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받는 나어린 서예가, 연주가, 세계올림픽경연 입선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것이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육체적준비가 좋다고 하더라도 강의한 의지, 정신적힘이 없이는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의지적행동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가

사람의 의지적행동은 두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의지적행동의 첫 단계는 결심을 채택하는 단계이다.

결심을 채택한다는것은 제기되는 여러개의 방도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명확히 선택한다는것을 말한다.

결심채택단계에서는 의지적행동이 실천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이 단계는 의지적행동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수 있다.

의지적행동의 둘째 단계는 자기가 채택한 결심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결심을 집행하는것은 결심을 채택하는것보다 더 어렵다. 이 단계에서 예견하지 못하였던 수많은 애로와 난관들이 제기되며 특히 주저감, 동요감과 같은 부정적감정들은 결심집행을 방해한다. 때문에 이 단계는 곤난을 이겨내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는 기본단계로 된다.

혁명영화 《친위전사》에서는 남달리 몸집이 크고 힘도 장사였던 대원이 모진 추위와 배고픔, 싸움에 지치여 사상적으로 동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상적동요를 이겨내지 못한 그는 끝내 총을 버리고 대원들도 모르게 슬그머니 도망을 가게 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는 온 산판을 뒤지시면서 나무뒤에 머리를 푹 박고있는 그를 찾아내여 일깨워주신다.

김정숙어머님의 설득력있는 교양과 인정미에 그는 내적인 동요를 이기고 대오를 따라서게 된다.

이것은 부닥친 난관앞에 생긴 동요를 이겨내는 정신적힘이 있어야 혁명투쟁에 끝까지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혁명적이고 강한 의지를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꺾을수 없는것이 혁명가들의 의지이고 멈춰세울수 없는것이 혁명가들의 투쟁이다.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다.

혁명적이고 강한 의지를 지니려면 첫째로, 혁명사상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지는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에 기초하는가에 따라 그 발휘정도가 좌우된다.

혁명사상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문제를 혁명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강한 지향을 가지며 투쟁에서 불굴의 의지를 높이 발휘할수 있다.

학생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수령, 우리 인민, 우리의 사회주의가 제일이라는 사상과 신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을 지녀야 한다.

둘째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련되여야 한다.

의지는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천속에서 이루어진다. 실천은 의지를 공고히 하고 단련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영웅이 되겠다고 하면서도 의지를 단련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뒤걸음치게 되고 자기의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없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조직생활을 통해 정치적으로 단련된 아이들은 지조를 굽히지 않는 법이라고, 우리의 아동단원가운데는 자기의 정치적신념을 한푼의 돈과 바꾼 아이들이 한명도 없었다고 하시였다.

학생들은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의지를 단련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고 누구나 다 여기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셋째로, 제기된 과제를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하는 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일단 시작한 일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해내야 자립성과 인내성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만일 하는 일이 성차지 않다고 하여, 또 힘들다고 하여 중도에서 줴버리면 자립성과 인내성을 키울수 없으며 이것은 의지력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학생들은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교시

《육체적고통이나 정신적고통이나 다같이 그것을 이겨내자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그것은 자기자신과의 부단한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신념과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사랑하는 법이며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직 가능만이 있고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를 보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이것이 우리 당의 신념이며 의지이다.》

문제

1. 의지란 무엇인가를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2. 결심채택단계와 결심집행단계의 차이점을 밝히시오.
3. 지금까지 자기의 학습과 생활에서 있었던 가장 큰 애로와 난관은 어떤것들이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말해보시오.
4. 어렵고 힘든 수학문제에 부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끝까지 풀기위하여 어떤 의지를 발휘하였는가를 말해보시오.

과외읽기

영생의 꽃

아동단원 금순이는 항일혁명의 풍랑속에서 강철로 단련된 불굴의 어린 투사였다.

어느날 그는 적통치구역에 련락을 나갔다가 일제헌병대놈들에게 붙잡히게 되였다.

9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는 헌병놈들의 그 어떤 회유와 기만, 고문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더는 금순이에게서 그 어떤 비밀도 뽑아낼수 없게 된 헌병놈들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를 사형장으로 끌고갔다.

눈뜨고 볼수 없는 금순이의 처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유격구인민들은 모두가 이를 갈며 치를 떨었다. 백초구들판에는 눈물의 바다가 고이였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을 향해 금순이는 이렇게 웨치였다.

《아버지, 어머니들, 왜 우십니까? 울지들 마세요. 혁명군아저씨들이 꼭 원쑤를 쳐없앱니다. 조국이 해방되는 날까지 굳세게 싸워주십시오!》

불을 토하는것 같은 이 최후의 절규에는 9살밖에 되지 않는 그의 생애가 짤막하게 함축되여있었다. 사형장에서는 《일제놈들을 타도하라!》, 《조선혁명 만세!》를 부르짖는 금순이의 애된 목소리가 맵짜게 울리였다.

참으로 아동단원 금순이는 9살을 살고 영생을 얻은 소녀였다.

9살이면 꽁다리연필처럼 짤막한 생애이다. 그러나 번개의 섬광과도 같이 번뜩거리다가 사라진 이 어린 나이에 그는 인생이 도달할수 있는 최고의 정신적높이에 도달하였으며 사람이 사람으로 태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산모범으로 똑똑히 가르쳐주었다. 세상에는 100살을 살 때까지 민족앞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가버린 사람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는 9살에 후대들의 추억속에 영생할 위훈의 창조자가 되였다.

제4장. 관심, 흥미, 리상

관심, 흥미, 리상은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로 마음이 쏠리는 심리현상으로서 사람들의 생활목표와 방향, 요구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1. 관 심

관심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합니다. 특히 과학을 탐구하는 대학생들은 새로운 사상에 민감하고 주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하나 보고도 스쳐지나지 않고 그것을 분석평가하여 자기의 주견을 세우게 됩니다.》

학급동무들가운데는 사회정치적문제에 특별히 주의를 돌리고 다른 동무들보다 신문과 잡지에 실렸거나 방송과 텔레비죤에서 나오는 국제정세라든가 세계상식들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동무들이 많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실력상태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쓰면서 학교와 련계를 맺고 자주 알아도 보고 학습장도 뒤져보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 가르쳐준다.

이와 같이 사회정치적문제에 특별히 주의를 돌리거나 자녀들의 학습에 대하여 항상 마음을 쓰면서 적극적으로 대하는 심리현상이 관심이다.

관심이란 의식적으로 일정한 대상에 마음을 두고 특별히 알아보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하려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관심은 우선 학습과 생활과정에 필요되는 문제들을 자각한데 기초하여 발생하는 심리현상이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책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반드시 구할뿐아니라 짬시간을 리용하여 마지막까지 파고들면서 탐독하게 된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교원이나 부모들의 특별한 요구성과 통제가 없다 해도 학생들의 목적의식적인 자각에 의하여 학습성과가 눈에 뜨이게 나타나게 된다.

관심은 또한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지 행동으로 구현해보는 심리현상이다.

학생들은 일정한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더 잘 알아보려고 할뿐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

실례로 콤퓨터배우기에 관심을 가지면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때까지 콤퓨터다루기와 관련한 책들을 늘 빠짐없이 보려고 할뿐아니라 실지 콤퓨터에 마주앉아 부지런히 련습해본다.

관심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관심은 대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자기 또는 집단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으며 필요하다는것을 깨닫고 꼭 해내겠다는 마음을 다질 때 형성된다.

관심은 우선 어떤 대상을 아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된다.

실례로 중학교시절에 학생들은 철봉이나 평행봉, 탁구, 축구와 같은 체육종목들이 어떤 운동들이고 키를 크게 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하는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여러 계기에 알게 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관심은 또한 파악한 대상이 자기 또는 집단의 요구에 맞고 필요하다는것을 깨닫는 과정에 형성된다.

우의 실례에서 체육운동의 중요성과 역할을 파악한 다음 키가 작은 학생들은 체육운동이 키를 빨리 크게 하려는 자기의 요구에 맞는다는것을 깨닫고 체육을 잘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 학생들속에서는 체육에 대한 관심이 형성되게 된다.

관심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선 관심하는 대상에 항상 주의를 돌리고 해결될 때까지 모든것을 다하게 한다.

일정한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언제나 그와 련관시켜 사고하고 실천하게 된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늘 관심하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부대들과 공장, 광산, 농촌 등 그 어디를 찾으셔도 언제나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시며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실천적문제들을 의논해주신다.

또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다른 일보다 훌륭하게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일은 목적의식적으로 수행되는것만큼 성과도 크다.

실례로 화학과목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다른 동무들보다 화학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듣고 그날 배운것은 그날로 알고 넘어가기 위해 애쓰게 되며 여러가지 참고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결국 다른 동무들보다 높은 실력을 지니게 된다.

옳바른 관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옳바른 관심을 가지려면 첫째로, 어려서부터 개인생활에 대한 문제보다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대상들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혁명가가 되자면 개인의 리익을 집단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여야 한다.

학생들은 하나를 생각하고 마음을 써도 언제나 집단을 위한 일, 당과 혁명을 위한 일에로 지향되여야 하며 그것을 빛내이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둘째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대상과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깊이 체험하여야 한다.

아무리 마음을 두기 시작하는 대상이라도 공감되는 계기가 적고 즐거운 감정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맞는 대상으로, 관심있는 대상으로 전환되기 힘들다.

학생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활동에 보다 의식적으로, 적

극적으로 참가하여 그 진미를 스스로 깊이 느껴보아야 한다.

셋째로, 일단 관심하는 문제들은 끝까지 실현하여야 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일에 관심을 가지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간직해둘것이 아니라 행동에 구현하여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악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

1. 관심의 본질을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의 글을 읽고 관심이 어떤 심리적작용을 하였는가를 말해보시오.

   어느날 아르키메데스는 왕으로부터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비밀을 밝혀낼데 대한 과업을 받고 그 문제를 푸는데 관심을 가졌기때문에 목욕탕에 가서 욕조안에 몸을 잠그는 순간에도 비밀을 밝혀낼수 있는 실마리를 얻어내게 되였던것이다.
3. 자기 반 동무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있는가를 알고있는대로 말해보고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분석해보시오.
4.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관심을 극복하고 옳은 관심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을 자신의 둘도 없는 인생관으로 삼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 문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최상의 수준에서 무조건 풀어드리군 하시였다.

인민대학습당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상을 받드시고

항상 관심하시고 마음속에 새겨두시였다가 현실로 꽃피운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의 하나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오래전에 돈이 좀 생기면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여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물론 인민들이 누구나 다 그곳에 와서 공부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위대한 장군님께 말씀하신적이 있었다. 그때 그 말씀을 심장깊이 새겨두셨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70돐전으로 인민대학습당을 건설하기로 결심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호소하시였다.

청년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두가 달라붙어 힘찬 건설투쟁을 벌려 끝끝내 인민대학습당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70돐전으로 훌륭히 건설하여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이밖에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는데 언제나 마음 쓰시며 모든 심혈을 다 바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충실성과 불멸의 업적은 끝없다.

2. 흥 미

흥미란 무엇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이 공부에 취미를 가지고 책을 많이 읽으며 과학탐구에서 진취적이며 진지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수학시간만 돌아오면 너무 좋아 활기를 띠고 선생님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린다든가, 그 시간에는 선생님의 설명을 순간이라도 놓칠세라 귀담아듣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이처럼 수학시간이 돌아오기만을 즐겨 기다리는 학생을 보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고있다고 말한다.

흥미란 일정한 대상과 활동을 특별히 즐겨 알아보고싶어하는 심리현상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흥미와 함께 취미라는 말도 쓴다.

취미란 일정한 활동을 직접 해보고싶어하는 심리현상을 말한다.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즐겨 알아보고싶어할뿐아니라 직접 해보고도 싶어한다.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죤에서 축구경기장면이 나오거나 신문들에 축구경기소식이 소개되면 다른 일은 뒤로 미루어놓고 재미나서 관람하거나 알아본다. 그리고 실지 경기때마다 경기장에 나가 뽈을 차는것을 즐겨한다. 이런 현상을 보고 축구에 흥미와 함께 취미를 가지고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흥미가 어떤 대상이나 활동을 즐겨 알아보고싶어하는 심리현상이라면 취미는 그것을 직접 해보고싶어하는 심리현상이다.

흥미는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우선 긍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체험한다는데 있다.

관심에서는 자각이 기본이지만 흥미에서는 감정체험이 기본으로 된다.

어떤 대상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 다른 대상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 어떤 대상을 대할 때 부정적감정이 동반되면 그 대상으로부터 멀리하게 되지만 긍정적감정이 동반될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에로 접근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대하게 된다.

마치 음식이 맛이 있어야 그 음식을 즐겨 찾고 맛보려고 하듯이 일정한 대상이나 활동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여야 그러한 대상과 활동을 계속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흥미가 없는 대상을 대할 때에는 권태감, 불쾌감, 지루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만 흥미가 있는 대상에 대하여서는 쾌감, 즐거움, 자신감 등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또한 강한 주의집중을 동반한다는데 있다.

책읽기에 흥미를 가지면 옆에 누가 와도 정신없이 책을 읽게 되며 체육에 흥미를 가지면 텔레비죤에서 경기소식만 나와도 그것이 끝날 때까지 즐겨보게 된다.

흥미있는 과목공부시간에는 45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학생들자신도 감촉하지 못한다.

흥미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흥미는 우선 일정한 계기에서 어떤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자각을 가지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된다.

순남이가 물리과목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순남이는 처음에 물리과목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물리시간만 돌아오면 은근히 싫증이 났고 문제풀이를 할 때면 걱정부터 앞섰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3점》이 새겨진 물리성적게시판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였다. 이때부터 그는 물리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자각을 가지게 되였다.

흥미는 또한 자각을 가진 대상이나 활동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점차 그에 만족감과 쾌감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형성된다.

우의 실례에서 물리공부를 잘해야겠다는 자각을 가진 다음부터 순남이는 물리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한자도 놓칠세라 귀담아 들었고 과외시간에는 모를것이 있으면 선생님과 동무들을 찾아다니면서 꼭 알고 넘어가군 하였다. 그랬더니 한달이 지나서부터 성적은 눈에 뜨이게 올라갔다.

그때부터 순남이는 물리공부하기가 참으로 즐거웠고 모르던 문제를 제힘으로 풀 때면 커다란 만족과 기쁨을 가슴뿌듯이 느끼군 하였다.

이제 와서 그는 학과목중에서 물리가 제일 흥미있는 과목으로 되였고 앞으로 물리박사가 될 꿈까지 지니게 되였다.

흥미는 학습을 비롯한 모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흥미는 우선 학습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성과를 보장한다.

흥미있는 대상과 현상을 대할 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하게 된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언제나 스스로 정열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이때에는 오래동안 학습에 집중하여도 피로를 모르고 싫증을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공부를 흥미있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보다 성과가

크다.

흥미는 또한 사람들에게 숙련된 행동방식, 특기기술을 형성시키는데 작용한다.

특히 취미는 사람들의 특기기술, 재간, 품성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사람들의 특기기술, 재간, 품성형성이 취미와 많이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흥미나 취미를 가지게 되면 그에 대한 숙련과 특기기술을 남보다 빨리 련마할수 있다.

학습흥미를 옳게 가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흥미에는 좋은것만 있는것이 아니라 학습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나쁜것도 있다. 우리들이 가져야 할 흥미는 학습과 생활에 유익한 흥미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습에 흥미를 가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에 흥미를 가지자면 첫째로,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학습을 잘하겠다는 높은 의욕을 가져야 한다.

학습흥미는 학습에 대한 의욕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습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은 누구나 다 더 많이 배워 사회와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자각과 의욕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워주시고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탐구심이 강한 실력있는 사람들이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서 큰 실적을 내였다.

둘째로, 공부를 하면서 모를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알고 넘어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부를 하다가 모를 문제에 부닥칠 때 겁부터 먹고 주저앉게 되면 점차 공부를 하는데서 신심을 잃고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며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버리게 된다.

학생들이 학습흥미를 가지자면 처음부터 기초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모를 문제가 있으면 제때에 알고 넘어가는 버릇을 붙이며 학습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시간가는줄 모르는 재미나는 시간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셋째로, 학습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 공부의 진맛, 긍정적인 지적감정을 많이 체험하여야 한다.

정열적인 학습과정에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지식의 높이에서 쾌감과 기쁨을 느끼군 한다. 여러가지 학습참고서들을 꾸준히 탐독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감정을 체험하게 되면 학습흥미와 취미가 발생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문제

1. 다음의 글을 읽고 흥미와 취미를 갈라보시오.
   ① 신일이는 영어공부를 매우 재미있어한다.
   ② 향이는 수놓이를 매우 즐긴다.
   ③ 봄이는 책읽기를 매우 좋아한다.
   ④ 은철이는 전투영화를 매우 좋아한다.
2. 흥미가 학습의 성과를 어떻게 보장하는가를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3. 자기는 어떤 흥미를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였는가를 말해보시오.
4. 책읽기에 흥미를 가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우리 장군님의 취미

주체90(2001)년 7월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 주요 국제문제들에 대한 고견을 주실것을 청원하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였다.

이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자신의 취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취미에 대하여 말한다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것은 인민들과 군인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것입니다.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이 어떻게 일하고 생활하는가를 알아도 보고 돌보아도 주며 그들과 어울려 이야기도 나누고 고락을 같이하는것이 나의 가장 큰 보람이고 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읽기와 음악을 좋아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책과 음악은 우리 사업의 량식이며 생활입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을 제일로 사랑하시기에 그들속에 계시는것을 가장 큰 보람과 락으로 여기시는것이다.

3. 리 상

리상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를 지향하며 마음속에 아름다운 꿈을 안고 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에게 있어서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가지는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청춘의 참다운 삶과 보람은 리상과 포부를 가지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중학교시기에 이르면 우리들은 누구나 다 자기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마음속에서 그려본다. 어떤 동무는 어엿한 군인으로, 어떤 동무는 20대의 박사로, 또 어떤 동무는 유명한 체육인으로 성장할 자기들의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그려보게 된다.

리상이란 앞으로의 최고목표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형상(모습)을 말한다.

우리들은 흔히 생활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요구를 제기하고 그에 따라 크고작은 목표들을 세워가며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한다.

즉 마음속으로 (이번 학년말시험에서 꼭 최우등을 할테야!),

(중학교기간에 손풍금을 능숙하게 탈수 있게 준비할테야!)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나간다.

그가운데는 지금 당장 해보려는 목표도 있고 앞으로 전망적으로 꿈꾸는 최고목표도 있다. 이때 앞으로의 최고목표를 그려보는 과정이 리상이다.

리상은 우선 미래에 대한 생동한 형상이다.

우리는 리상을 세울 때 현실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면서 미래의 어엿한 자기 모습이나 생활을 실지 눈으로 보는것처럼 생동하게 그린다.

학생들은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과학자들과 이름난 창작가들, 세계무대에서 주체조선의 위용을 떨쳐가는 체육명수들을 보면서 앞날의 자기들의 모습을 이러저러하게 생동하게 그려본다.

이처럼 리상은 허황한 망상도 실현불가능한 공상도 아니며 현실성있는 미래에 대한 생동한 형상이다.

리상은 또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실현되게 될 크고 원대한 목표이다.

리상은 한두번의 노력과 투쟁으로 쉽게 도달할수 있는 보통정도의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자신의 피타는 노력과 정력,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실현되게 될 크고 원대한 목표이다.

실례로 앞으로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병사를 그린다면 길영조영웅처럼 공화국영웅이 되여 위대한 장군님을 총대로 받드는 참된 병사를 그리는것이 학생들이 가지는 크고 원대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는 인민군대에 탄원하여 병사생활에 참가한다고 하여 저절로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가지고 군사정치훈련에 보다 적극적으로 훌륭히 참가하는 과정에 달성된다.

리상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리상은 처음에 여러 조건과 계기들에서 일정한 대상에 대한 리해를 가지는것으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일정한 대상에 대하여 파악해야 그것이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을 알고 그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다음에 일정한 대상에 대한 파악에 기초하여 실천활동과정에 여러가지 충동과 동경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

리상의 대상에 대한 충동과 동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생님이나 부모들의 교양적영향을 받는 과정에 이루어질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탐구하는 과정에 이루어질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은 책이나 텔레비존을 보는 과정에 이루어질수도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에 김형직선생님과 강반석어머님의 혁명적교양과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면서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을 큰뜻을 지니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교양하시였고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부모님들의 혁명적영향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기에 어리신 나이에 벌써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고 만민이 평등하게 사는 행복한 나라를 그려보시면서 혁명의 길에 나서실 큰뜻을 품으시였다.

다음에 일정한 대상에 대한 동경은 점차 리상으로 전환된다.

일정한 대상에 대한 동경은 학습과 실천활동과정에 점차 구체적이고 생동한 형상으로, 확고하고 강렬한 리상으로 전환된다. 이때에 그리는 형상은 단순한 사람 또는 직업의 형태로가 아니라 높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담은 원대한 형상으로 주어진다.

리상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리상은 우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규정해준다.

어떤 리상을 가졌는가 하는데 따라 사람들의 삶의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다.

참다운 리상은 생활에서 참된 삶과 보람을 낳는다.

조선예술영화 《먼 후날의 나의 모습》에서 수향이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주의대건설장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제대된 후에도 상급학교 추천을 마다하고 자기 고향 대홍단군 종합농장에서 청춘시절을 값있게 빛내일 리상을 가지지만 주인공 신준이는 부모들의 덕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편안히 살려는 그릇된 리상을 가진다.

때문에 수향이는 대홍단벌에서 순간순간을 륭성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값높은 구슬땀을 흘리게 되며 신준이는 하루하루를 특별한 흔적도 없이 허송세월하게 된다.

그러나 생활과정에 점차 자기보다 높은 수향이의 정신세계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은 신준이는 그릇된 사상과 결별하며 대홍단벌에서 자기의 새 모습과 생활을 창조하겠다는 높은 리상과 포부를 지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게 된다.

리상은 또한 그것을 수행하는 활동에서 힘과 열정을 쏟아붓게 한다.

사람들은 리상이 높고 원대할수록 스스로 거기에 만족과 애착을 가지게 되며 동무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게 된다. 만족과 애착, 지지와 찬동은 리상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강한 의욕을 가지게 하며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힘과 열정을 깡그리 쏟아붓게 한다.

앞으로 인민경제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고 정보기술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쥐려는 꿈을 지닌 학생은 중학교시기부터 콤퓨터기술을 터득하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세계무대에서 공화국기를 펄펄 휘날리는 체육인이 될 꿈을 지닌 학생은 과외체육소조에 망라되여 높은 급의 특기기술을 련마하기 위하여 아낌없는 열정을 바치게 된다.

평양제1중학교에 입학한 한 학생은 앞으로 생물학분야에서 패권을 쥘 높은 리상을 안고 생물학은 물론 수학, 물리, 화학 등 기초과학과목학습을 꾸준히 하였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3개의 외국어에 정통하였다.

이처럼 숭고하고 원대한 리상은 사람들을 위훈과 혁신, 창조에로 적극 추동한다.

높고 아름다운 리상을 지니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높고 아름다운 리상을 지니고 실현하려면 첫째로, 높고 아름다운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지니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높고 아름다운 리상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길에 청춘의 열정을 다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리상이다.

이러한 리상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찾아야 한다.

학생들은 일정한 분야의 단순한 과학자, 체육인, 봉사자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생의 흔적을 뚜렷이 남김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추억속에 남아있고 인민이 다 아는 참된 과학자, 체육인, 봉사자가 되려는 리상을 지녀야 한다.

그러자면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길에서 이름을 남긴 시대전형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자신의 생활과 결부하여 파악해야 한다.

둘째로, 높고 아름다운 리상의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높고 아름다운 리상을 지닌 다음에는 단계별 목표를 바로 정하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끝까지 실현해나가야 한다.

리상을 지녔다고 하여 때가 되면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높고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난관들이 조성될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그 어떤 연구과제를 잡고 과학의 세계를 하나하나 탐구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다. 5년이나 10년이 걸릴수도 있고 지어 생을 다 바쳐도 끝을 보지 못할수 있다.

따라서 난관을 박차고 리상을 끝까지 실현해나가자면 확고한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지니고 정신력을 최대로 발휘해야 하며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인내성있게 하나하나 점령해나가야 한다.

내세운 최고목표는 단번에 실현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계별로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점령해나가는 과정에 실현된다.

가령 콤퓨터박사가 되려는 리상을 가졌다면 수학, 물리, 외국어 등을 열심히 배우면서 콤퓨터다루기와 프로그람작성법을 초보적으로 터득하고 기능을 련마해나가야 한다. 그래야 대학에 가서도 콤퓨터기술을 충분히 소유하고 20대, 30대에 이름있는 박사, 발명가가 되여 선군조선을 빛내이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포부와 리상이 없는 젊음은 청춘이 아니다.》

《군사복무, 여기에 청춘시절을 값있게 보내는 참된 길이 있다.》

《청년들의 참다운 리상은 투쟁속에 있고 투쟁속에서 꽃펴날수 있다.》

문제

1. 조선예술영화《한 녀학생의 일기》에서 딸과 아버지의 리상이 어떤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2. 최근시기 신문과 방송, 텔레비죤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학생들의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에 대하여 2가지이상 실례들어보시오.
3. 자기의 리상은 무엇이며 어떤 계기에 발생하게 되였는가를 말해보시오.
4. 농학박사가 되려는 리상을 실현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그것이 저의 최대의 리상이구 포부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공부하실 때의 일이다.

이 시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어문교원이였던 상월선생을 무척 존경하고 따르시였다.

남달리 과학탐구심이 높고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뛰여난 실력에 탄복한 상월선생은 수령님을 자기의 숙소에 초청도 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서가도 3년을 기한으로 통채로 맡기고 살뜰히 보살펴드리였다. 그러면서 한가지 조건부로서 장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프로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수 있는 작가로 되여주실것을 간청드리였다.

이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상월선생에게 자신의 리상과 포부를 다음과 같이 표명하시였다.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리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것입니다.》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 끄덕이다가 경애하는 수령님곁에 다가와 어깨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씀드렸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리상이라면 나는 그 리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그리하여 그날부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홍루몽》,《압록강가에서》,《소년방랑자》,《어머니》 등을 쉴새없이 탐독하시였다.

제5장. 성격과 버릇

성격과 버릇은 사람들의 개성을 가장 뚜렷이 나타내는 심리현상이다. 성격과 버릇이 어떠한가를 알면 그가 어떤 류형의 사람인가를 인차 알수 있다.

1. 성 격

성격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반적으로 성격이라고 하면 매 사람에게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징과 그의 개성적표현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있듯이 자기의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있다.

같은 학급에서 일정한 기간 함께 생활해보면 매 동무들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동무들에 대하여 물어보면 그 동무는 정직하고 착하다, 서글서글하고 사귀기 좋다, 곁을 잘 주지 않는다, 너무 톡톡 쏜다, 참을성이 있다 등으로 말하여준다.

이것은 다 동무들의 성격에 대하여 표현하는 말들이다.

성격이란 매 사람에게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징과 그의 개성적표현을 말한다.

성격의 한 측면은 매 사람들에게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사상정신적특징이다.

사상정신적특징은 인간성, 근면성, 겸손성, 용감성 등의 형태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동무들을 대하는 인간성이 사람마다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보자.

어떤 동무는 동무들을 진실하면서도 너그럽게 대해주지만 어떤 동무는 경중을 따져가며 표리부동하게 대해주고 또 어떤 동무는 그저 호인처럼 편안하고 좋게만 대해준다.

이것만 보고도 사람들은 《그 동무는 진실하고 너그럽다.》, 또 《그 동무는 진실하지 못하고 표리부동하다.》라고 평가한다.

성격의 다른 한 측면은 매 사람마다 나타나는 개성적표현이다.

김동무와 박동무가 다같이 로동에 성실하고 근면한 사상정신적 특징을 지닌 사람들이라 해도 그 성실성과 근면성이 겉으로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데 따라서 김동무와 박동무가 성격상 다르다는것을 알게 된다.

김동무는 같은 일을 해도 불이 번쩍나게 땀을 흘리면서 해제끼는가 하면 박동무는 꾸준하고 침착하게 천천히 해제낀다.

따라서 다같이 성실하고 근면한 김동무와 박동무가 서로 다른 개성적표현에 의해서 주위사람들에게 서로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로 인식된다.

사람들의 개성은 성격과 함께 성미에 의하여 더 뚜렷해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람들이 같은 사물현상을 대하면서도 각이한 표정과 행동을 취하게 되는것은 성미가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성미는 심리과정의 속도, 강도, 균형, 지속성의 정도에 따라 성격을 겉으로 다양하게 나타내는 공고한 심리적속성이다.

사람마다 인식과정과 감정체험과정을 비롯한 심리과정들은 그 속도와 강도, 균형, 지속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인식과정과 감정체험의 속도가 빠르고 지속성이 짧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식과정과 감정체험속도가 느리고 지속성이 길다.

성미는 심리적속성들인 속도와 지속성, 균형이 어떻게 결합되는가 하는데 따라서 크게 성급한 성미, 느린 성미, 개방적인 성미, 내성적인 성미로 나눈다.

성급한 성미는 사물현상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강하며 지속성이 짧은 류형이다.

우점은 사물현상에 민감하게 대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결단성이 있고 패기가 있는것이다.

결함은 감정을 지나치게 직선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표현하며 자제력이 부족한것이다. 주위환경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고려하

지 않고 자기 주견을 내세우는것으로 하여 때때로 사람들과 사귀는데서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텔레비죤소설 《석개울의 새봄》에서 억삼이,《백금산》에서 류혁이가 전형적인 성급한 성미를 가지고있다.

《석개울의 새봄》에서 억삼이는 언제나 조합일에 적극적이고 열성적이다. 그리고 잘못된것을 보고는 참지 못한다.

느린 성미는 사물현상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느리고 지속적이며 감정표현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류형이다.

우점은 사색이 깊고 지속적이며 꾸준하고 인내성이 강한것이다.

결함은 감정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않으며 잔소리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적은것이다.

텔레비죤소설 《첫 기슭에서》에서 정만이가 전형적인 느린 성미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그가 순박하고 어진 농촌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공청이 조직되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모여앉은 자리에서 행동하는것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 계기에서 침착하면서도 느리고 감정표현을 잘 드러내지 않는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개방적인 성미는 사물현상에 대한 반응과 행동이 예민하고 빠르며 감정표현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류형이다.

우점은 사물현상을 빨리 인식하고 언제나 명랑하며 행동이 민첩하고 경쾌하며 다방면적인 동무들과 잘 사귀는것이다.

결함은 대상에 대한 인식이 깊지 못하며 침착하지 못하고 지구성이 부족한것이다.

자기의 속을 터놓기 좋아하지만 동무들을 경솔하게 대하며 일단 시작한 일을 끝맺지 못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일을 벌려놓기 좋아한다 .

텔레비죤련속극 《종달새》에서 향미가 전형적인 개방적인 성미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살기 좋은 자기 고향마을을 노래로 자랑하는데서 그리고 고집을 쓰며 일밖에 모르는 반장을 점차 노래를 사랑하고 정서가 넘치는 인간으로 변모시키는데서 잘 보여주고있다.

내성적인 성미는 사물현상에 대한 인식이 깊고 감정표현이 서서히 일어나며 행동이 침착하고 속생각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 류형이다.

우점은 사물현상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통제하며 행동을 조용하고 실수없이 하는것이다.

결함은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행동을 지내 조심스럽게 하는것이다.

텔레비죤소설《첫기슭에서》에서 수련이를 실례로 들수 있다.

그것은 공청에 들고싶은 마음은 있어도 자기가 직접 찾아가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힘들게 터놓으며 해동이에게 자기가 만든 기발을 주어서 조용히 자기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잘 알수 있다.

성격과 성미는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가

성격은 체계적인 교육교양과 실천활동, 사회적환경의 영향 등에 의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회적환경과 실천활동을 벌려나가는가 하는데 따라서 성격의 중요한 측면인 사상정신적특징들이 형성되게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은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이라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성미는 선천적인 특성에 기초하면서도 자신의 적극적이고 의식적인 노력과 실천활동과정에 하나의 공고한 심리적속성으로 굳어지게 된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느리거나 성급하며 빠른 특성들은 많은 경우 처음에는 선천적인 특성에 토대하여 나타난다. 그러나 성미상 특성이 결코 고정불변한것은 아니다. 집단생활에 저애를 주는 그릇된

성미들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변경시킬수 있다.

실례로 교제력이 부족한 학생은 학습과 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동무들과 휩쓸리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군중성이 좋고 교제력이 높은 성미의 소유자로 될수 있다.

성격과 성미를 옳게 발전시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성격과 성미를 옳게 발전시키자면 첫째로, 성격과 성미형성발전에 미치는 요인들을 잘 알고 그것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교육교양과 조직생활, 집단생활은 옳바른 성격을 갖출수 있게 하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학생들과 질적으로 다른 우리 사회에서의 학생들의 훌륭한 성격은 그 주위환경이 다른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주체교육을 받으며 누구나 다 조직생활과 집단생활을 통하여 단련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의식적으로 성격과 성미를 훌륭하게 다듬어나가야 한다.

둘째로, 참다운 인간들의 고상한 품성을 본받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현시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격개조의 기본목표는 인민군군인들이 지닌 고상한 품성이다. 군인품성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희생정신을 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에 기초하고있다.

학생들은 인민군군인들과 선군시대영웅들, 공로자, 혁신자들의 사상정신세계와 성격상특징들을 적극 따라배우기 위해 힘써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사람이란 그야말로 천태만상이며 따라서 백사람과 사업을 하려면 백가지 처방이 있어야 한다.》

문제

1. 자기와 친한 학급동무의 성미가 4가지 류형중 어느 측면에 해당되는가를 찾아보시오.
2. 자기의 성격, 성미의 나쁜 측면을 찾아보고 왜 그런 성격과 성미를 가지게 되였는가 말해보시오.
3. 자기가 보거나 읽은 영화나 소설에서 4가지 성미류형에 따르는 인물들을 각각 2명씩 찾아보시오.
4. 참지 못하고 톡톡 쏘는 성미를 고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강반석어머님의 성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였다. 아버지는 혁명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이 강의하고 엄한분이였으므로 따뜻한 사랑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

내가 2년전에 조국으로 공부를 떠나게 됐을 때 그리도 나를 떼놓기 힘들어하던 인정많은 어머니였다.

만경대의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했으나 실상 그때 나는 말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느끼였다.》

《평시에는 이처럼 온순하고 무던한 어머니였지만 적들앞에서는 기상이 도도하고 강의하였다.

봉화리에서 아버지를 체포해간 일제경찰들이 몇시간후 우리 집에 달려들어 수색을 할 때였다. 그들이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성이 나서 <볼테면 보라!> 하고 자신의 손으로 옷가지들을 막 내던지고 찢어내치면서 무서운 기상으로 맞섰다. 그러자 놈들은 기가 죽어서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버렸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

2. 버 릇

버릇이란 무엇인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의 품격과 사상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따라서 어린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은 그들의 장래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들의 생활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행동이나 동작들이 있다. 즉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와 함께 밖에 나가 꼭꼭 운동을 하고 체조를 한다든가, 하루일과가 끝나면 어김없이 일기를 쓴다든가, 공부가 끝나면 꼭꼭 복습과 예습을 하는것은 학습과 생활과정에 굳어져 스스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다.

버릇이란 생활과정에 공고하게 굳어진 사고방식과 활동방식을 말한다.

버릇은 우선 일정한 조건이 조성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나타난다.

글을 읽거나 연설을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주 머리를 쓰다듬는다든가, 글을 쓸 때 아무리 큼직큼직하게 쓰려고 해도 점점 더 작게 쓰게 된다든가, 오른손으로 밥을 먹다가도 왼손으로 저가락질을 하게 되는것 등은 다 그 어떤 버릇된 동작이 일정한 환경과 조건이 조성되면 자동적으로 나타난다는것을 말해준다.

버릇은 또한 매우 공고하고 집요하다.

일단 형성되여 굳어진 나쁜 버릇을 고치는것은 새로운 버릇을 붙이기보다 몇갑절 더 힘들다. 이미 숙련된 손풍금연주기능이라든가, 체조동작기능에서 잘못 형성된 부분을 수정시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것이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주는것보다 더 품이 든다.

굳어진 버릇은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방식에서뿐아니라 걸음걸이, 말투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한마디의 말을 시작하거나 끝낼 때마다《이자, 이자》,《그럼, 그럼》,《어, 어》한다든가 지방에서 살

던 사람이 평양에 와서 평양말을 하다가도 그 지방에 가게 되거나 그 지방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그 지방의 사투리를 쓰는것은 버릇의 공고성과 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실례들이다.

버릇은 또한 그 수행과정에 만족감과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한다.

일정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버릇된 동작을 하지 못하면 불안한감, 긴장감, 안타까운감 등을 느끼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다가도 정작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날 내준 숙제를 그날로 어김없이 하는데 습관된 동무는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뒤치락거린다. 그래서 종시 일어나 숙제를 하고서야 불안이 해소되고 안정되여 잠을 자게 된다.

버릇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버릇은 태여나면서 가지게 되는 본능적인 활동방식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활하는 과정에 이러저러한 요인들에 의하여 발생하고 부단한 반복과정에 형성되는 공고한 활동방식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버릇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기로 하자.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주위생활에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교양을 받아 의식적으로 일정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들가운데는 특별히 즐겨하면서 좋은 감정을 체험하는 동작들이 있다.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 일정한 단계에 가서는 드디여 그것이 하나의 숙련된 동작으로 굳어지게 된다.

영남이는 어떻게 예습을 꼭꼭 하고 수업에 참가하는 버릇을 가지게 되였는가.

위대한 장군님의 청소년시절 학습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학습과정에 예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그는 그날부터 예습을 하고 수업에 참가하였는데 좋은 점이 많았다.

즉 선생님이 배워주는 내용이 리해도 잘되였고 예습을 하면서

가졌던 의문들도 수업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되였다. 접차 공부하기가 재미있었고 자기도 얼마든지 공부를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 확신감과 같은 좋은 감정들을 저도모르게 체험하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에 참가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해진다. 이렇게 그에게서 하루공부가 끝나면 숙제는 물론 꼭꼭 예습까지 해보군 하는 버릇이 생겨났다.

버릇은 사람들의 품성형성과 생활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버릇은 우선 사람들의 품성형성에 영향을 준다.

버릇에는 좋은것도 있고 나쁜것도 있다.

좋은 버릇은 학습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버릇들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체조를 하군 한다든가 학습에 열중하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는것이 좋은 버릇이다.

나쁜 버릇은 학습과 생활에 해를 주는 버릇이다. 신발을 꺾어 신고 다니고 늦잠자기 잘하며 숙제도 그날에 하지 않고 뒤로 미루며 항상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려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좋은 버릇은 학습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훌륭한 품성을 지니게 하지만 나쁜 버릇은 학습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그릇된 품성을 조장시킨다.

하나의 문제에 대하여 폭넓게 사고하여 정확한 해답을 찾고 글씨를 곱게 쓰는데 버릇되면 옳은 학습태도를 가지고 학습에서 훌륭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된다.

버릇은 또한 긴장감, 피로감이 없이 동작, 활동을 보다 윤활하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한다.

버릇된 동작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것이 강한 욕망과 긍정적인 감정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긴장감과 피로감이 발생하지 않으며 매 동작들이 보다 정확하게, 순탄하게 이루어져 그 활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다.

좋은 버릇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버릇은 어려서부터 형성된다는것, 나쁜 버릇은 좀처럼 고치기 힘들다는 생활의 교훈을 담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은 나쁜 버릇이 아니라 좋은 버릇이다.

좋은 버릇을 키우자면 첫째로, 어떤것이 좋은 버릇인가를 잘 알고 그것을 적극 지향해야 한다.

좋은 버릇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과 도덕생활, 학습활동과 문화생활 등에 도움을 주는 버릇들이다.

공부할 때 책상에 똑바로 앉아 주의를 집중해서 깊이 파고드는것은 좋은 버릇이지만 누워서 책을 본다든가 이참견저참견 하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않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그리고 말할 때에도 말마디를 꼭꼭 씹어서 정확하게 하군 하는것은 좋은 버릇이지만 군소리를 하거나 군손질을 하면서 말하는것은 나쁜 버릇이다.

이처럼 좋고 나쁜 버릇은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러므로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나타나는 나쁜 버릇들은 제때에 찾아내여 바로잡아나가며 좋은 버릇들은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둘째로, 버릇이 붙기 시작하는 초시기부터 모든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정확히 해나가야 한다.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말하기와 관련된 버릇이 생기게 되고 글씨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글씨쓰기와 관련한 버릇이 생겨난다.

처음부터 글씨를 작고 빽빽하게 써버릇 하면 다 큰 다음에도 그렇게 쓰는 버릇을 고치기 힘들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글쓰기를 시작하는 첫시기부터 말을 옳게, 규칙적으로 하고 글을 곱게 쓰는 버릇을 붙여야 한다.

셋째로, 강한 인내성을 가지고 나쁜 버릇을 없애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형성된 나쁜 버릇을 없앤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버릇은 타고나지 않으며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치고 좋은 버릇을 가질수 있다.

그러므로 한두번의 반복으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성있게 노력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잘못 붙은 습관을 고치는것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것보다 몇갑절 힘든 법이다.》

문제

1. 다음의 글을 읽고 누구의 행동이 버릇인가를 찾아내시오.
   ① 용남이는 여섯살이지만 교과서는 물론 《로동신문》도 거침없이 잘 읽는다.
   효남이는 교과서나 신문을 읽을 때마다 눈을 깜박거리는 습관이 있다.
   ② 신일이는 저녁마다 어머니에게서 손풍금을 배운다.
   용이는 손풍금만 쥐면 저도모르게 《민들레》의 곡을 치면서 손풀이를 하군 한다.
   ③ 영희는 책을 읽은 다음에는 꼭꼭 생동한 어휘표현들을 적어두군 한다.
   순희는 《배움의 천리길》을 읽고 생동한 형상수법들을 찾아내였다.
2. 자기에게서 좋은 버릇과 나쁜 버릇을 찾아보시오.
3. 자기 학급 동무들속에 어떤 좋은 버릇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이 학급에 주는 영향에 대하여 말해보시오.
4. 말을 곱게 하는 버릇을 가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아버님께서 키워주신 습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아버님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신 다음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시였다. 아버님께서 키워주신 이 습관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많은 책을 탐독하시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두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 기회를 리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시였다. 책이 많고보니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문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독서시간을 1분 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시면서 차례진 시간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시였다.

중심을 잡아쥐면서 책을 정독하시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하실수 있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책들을 보실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책을 보시면서도 많은 내용을 터득하시였다.

제6장. 지능, 기능, 재능

지능, 기능, 재능은 사람들의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1. 지 능

지능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어린이들은 지능상태가 전반적으로 높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는《머리가 돌지 않으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은 지능이 낮으면 그만큼 어떤 일에서나 지장을 받는다는 뜻이다.

지능이란 한마디로 머리쓰는 능력, 두뇌의 힘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머리를 써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배운 지식을 써먹기도 하며 새로운것을 창조해내는 지적활동능력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듣고도 남보다 빨리 리해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배운 지식에 기초하여 해결방도를 찾아내여 막힘없이 처리해나가는것은 다 지능이 높은 표현이다.

지능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관찰력,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이다.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해나가거나 배운 지식을 응용 또는 새것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에는 다같이 관찰력,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이 작용한다.

지능은 그의 높이, 속도, 유연성, 자립성정도의 차이에 의하여 사람마다 다르다.

지능의 높이는 어려운 문제를 풀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며 지능의 속도는 단위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지능의 유연성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어나가는 정도를 나타내며 지능의 자립성은 자체로 해결방도를 찾고 풀어나가는 정도를 나타낸다.

지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능은 우선 뇌수의 기능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사람마다 뇌수의 구조와 기능이 차이나는것만큼 그에 기초하여 형성되는 지능 역시 사람마다 차이나게 된다.

누구는 머리가 좋고 누구는 나쁘다고 할 때 그것은 많은 경우 뇌수의 기능과 많이 련관된다.

뇌수의 활동에서도 지능과 많이 련관되는것은 대뇌피질의 고급한 지적기능이다.

지능은 또한 지식과 밀접한 련관을 가지면서 형성된다.

물론 지식이 많다고 하여 지능이 높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머리속에 축적된 지식은 지능의 결과 이루어진것이며 다음의 지능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것은 지식이 정확하고 풍부할수록 그것을 밑천으로 하여 머리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쓸수 있기때문이다. 특히 사고력과 상상력은 지식이 풍부할수록 적극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능은 또한 사람자신이 부단히 머리를 쓰는 과정에 더욱 발전한다.

하나를 알아도 머리를 써서 반드시 자체의 힘으로 리해하고 배운 지식을 자체로 실천에 적용해보며 새롭고 독창적인것을 탐구하고 창조하는 과정에 지능이 발전한다.

지식을 습득할 때에 머리를 써가며 파고들지 못하고 손쉽게 기계적으로 외우기만 한다면 백날이 가도 지능이 높아지지 않는다.

지능은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능은 우선 인식활동이 훌륭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능이 높은 학생일수록 선생님이 배워주는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상대방과 교제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다. 지능이 높은 연구사가 보다 높은 실적을 내는 실례는 사람들의 인식활동에서 지능

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노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능은 부단한 인식활동의 결과에 이루어지며 일단 형성된 지능은 적극적인 인식활동에 작용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게 한다.

지능은 또한 실천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실천활동은 일정한 활동에 대한 파악과 활동방도를 찾아낸데 기초하여 진행된다.

일정한 활동과 관련한 지식을 파악하고 활동방도를 모색하는 과정은 반드시 지능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실례로 좋은일하기운동으로서 봄철나무심기가 진행된다면 작업책임자는 먼저 나무심기와 관련한 지식을 파악해야 하며 인원수와 작업량에 맞게 작업조직과 분담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록 이 지적과정이 단순한것 같지만 보다 짧은 시간동안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것은 그의 지능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데도 많이 관련된다.

이처럼 지능은 사람들의 인식활동뿐아니라 실천활동에서도 보다 빨리 정확하게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하며 처리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능을 키우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능을 키우자면 첫째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어야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지적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다.

지식을 소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원리적인 지식들을 자기의것으로 완전히 소화하는것이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사물현상의 본질을 원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지식은 지능발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고 똑똑하게 파악해야 한다.

둘째로, 지능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어떤 동무들은 지능에서 기본은 기억력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학습을 기억하는것으로 대치하려고 한다. 실례로 물리, 수학과 같은 과목학습도 원리적으로 파고들지 않고 풀이과정까지 그대로 외워서 머리속에 보존하려고 한다.

만일 어떤 학생이 기억력은 높지만 사고력이 낮은 수준에 있다면 그는 그 어떤 이미 배운 지식을 실천에 응용해보거나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난관에 부닥칠수 있다. 그러므로 지능을 발전시키는데서 그 어느 한 요소에만 치우쳐서 한 측면만을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지 말고 사고력을 중심으로 하여 관찰력, 기억력, 상상력을 다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부단히 새로운 현실적인 문제를 푸는 과정속에서 지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능은 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키워지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자체로 새로운 현실적문제들을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에 더 빨리 키워진다.

중학교시기는 새로운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마련되는 중요한 시절이다.

학생들은 지난 시기 세계를 놀래운 유명한 발명가, 발견자들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은 나이에 나왔다는것을 잘 알고 중학교시기부터 강성대국건설에 한몫 이바지할수 있는 참다운 인재가 될 포부를 안고 탐구의 나래를 펼쳐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쓰지 않으면 녹이 쓸고 무디여지는 것이 사람의 머리이다.》

《과학적인 판단력과 추리력, 풍부한 상상력이 없이는 대담한 작전을 할수 없으며 대담한 작전이 없이는 적을 타승할수 없다.》

문제

1. 뉴톤이 만유인력법칙을 내놓기까지의 다음의 지적활동과정에서 지능의 구성요소들인 관찰력, 기억력, 사고력, 상상력들이 어떻게 발휘되고있는가 설명해보시오.

   어느날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뉴톤은 머리우의 사과나무에서 《뚝》하고 사과가 떨어지는것을 보게 되였다. 그것을 유심히 관찰하는 순간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다. 마치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과를 잡아당기는것만 같았다.

   (물체에는 물체를 잡아끄는 힘이 있지 않을가. 만약 그렇다면…)

   그때부터 몇달동안 탐구에 탐구를 거듭하면서 끝끝내《만유인력의 크기는 두 물체들의 질량의 적에 비례하고 두 물체들사이의 거리의 두제곱에 거꿀비례한다.》는 만유인력법칙을 세상에 내놓았다.

2. 어느 때 지능이 가장 높이 발휘되는가를 다음의 경우들에서 찾아보시오.

   ① 은철이는 물리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설명을 귀담아들으면서 뜰힘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았다.

   ② 은철이는 물리수업시간에 배운 뜰힘의 법칙이 적용된 실례들을 과외학습시간에 자체로 찾아보았다.

   ③ 은철이는 과학착상경연에 출전할 창작품을 탐구하고있다.

3. 어느 경우가 틀린 경우들인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① 혁철이는 많은 상식을 알고있기때문에 지능이 높다고 말할수 있다.

   ② 경희는 사고력은 그리 높지 못해도 기억력은 좋다. 그래서 외국어단어 같은것을 잘 외워도 물리문제는 잘 풀지 못한다. 그래도 동무들은 그가 머리도 좋고 지능도 높다고 말한다.

   ③ 현민이는 사고력, 기억력은 물론 새로운것을 착상해보는 능력도 높다. 정말 그는 지능이 높다.

4. 수업시간을 통하여 지능을 키우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과외읽기

남다른 수학적지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어린시절부터 수학적지능이 남달리 뛰여나시여 사람들을 놀래우군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41(1952)년 11월 22일 한 학년을 뛰여넘으시여 만경대혁명학원 4학년에 편입하시였다.

어느날 산수시간에 선생은 주산알을 부지런히 튀기며 《627, 더하기 120, 덜기 107, 더하기 …》라고 세자리수 암산문제를 불러주었다.

수자를 어찌나 빨리 부르는지 얼마 못가서 학생들의 속셈은 뒤죽박죽이 되고말았다.

이윽고 수자부르기가 끝났다.

선생은 답이 얼마인가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하는 학생이 없었다.

그런데 이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용히 일어서시여 답을 말씀하시였다.

선생은 자기가 주산으로 계산한 답과 맞춰보더니 금시 얼굴이 환해지면서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라고 기뻐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경탄의 시선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보았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벌써 소학교시절부터 수자들에 대한 기억력과 계산조작능력, 량적관계들에 대한 사고력 등 수학적지능이 뛰여나시였다.

2. 기 능

기능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기능공들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체계도 바로세우고 생산부문에 진출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기술기능교육을 잘하여야 합니다.》

콤퓨터에 마주 앉으면 타자는 물론 여러가지 문서처리와 다매

체편집물제작, 프로그람작성 등을 원만히 하는 학생을 보고 우리는 그가 높은 콤퓨터기능을 소유하고있다고 이야기한다.

기능이란 지식과 동작방법에 기초하여 일정한 분야의 활동을 기본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콤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기능은 처음에 콤퓨터의 구조와 작용원리, 콤퓨터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타자기능이라면 건반에 새겨진 글자와 수자, 기호들의 의미와 손가락위치와 치기방법을 파악하여 머리속에 익히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지식과 동작방법에 기초하여 실지 콤퓨터에 마주 앉아 건반치기를 해보는 과정에 드디여 건반다루기기능, 타자기능이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바이올린을 다루는 기능이라면 먼저 바이올린의 구조와 손가락짚기, 활쓰기 등에 대한 지식과 동작방법에 대한 파악이 진행된다. 여기에 기초하여 선긋기로부터 시작하여 손가락짚기, 활쓰기동작을 직접 해보면서 기능을 형성한다.

이처럼 기능은 일정한 지식과 동작방법에 기초하여 그 활동을 기본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능력이다.

콤퓨터와 바이올린 다루기기능이 형성된 다음 반복훈련을 진행하면 점차 콤퓨터와 바이올린을 자유롭고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수준에까지 오르게 된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숙련**이라고 한다.

바이올린을 다루는 기능이 숙련되면 선률에 따라 손가락들을 어떻게 짚을것인가를 미리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동적으로 손가락들이 움직여진다.

이때에는 틀리게 음을 짚든가 활쓰기를 잘 못하는 불필요한 동작들이 없어지게 되며 조마조마한 심리상태와 긴장성이 해소되고 점차 심리상태와 몸가짐상태가 자연스러워진다.

세련된 기능은 어떤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가

훌륭하고 세련된 기능이 형성되기까지는 일정한 단계를 거치게 된다.

처음에는 해당 동작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초보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초기일반화상태에 있게 된다.

이 상태는 일정한 동작방식들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개별적인 동작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옹근동작으로 전환된 처음상태이다.

이때에는 항상 그 동작을 수행할 때에 동작방식들을 머리속에 그려보면서 천천히, 불완전하게, 힘들게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련습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인차 잊어버리게 된다.

개별적인 동작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 초기일반화상태는 점차 하나의 옹근동작으로 세련되여간다.

이 상태는 계속되는 련습에 기초하여 매개 동작들의 련결이 세련되고 불필요한 동작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며 보다 자동화되여가는 상태이다.

불필요한 동작들이 완전히 해소되면 하나의 자동화된 옹근동작으로 된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의 옹근동작이 자유롭게,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된다.

그 어떤 선률이 나와도 막힘없이 능숙하게, 자유자재로 손풍금을 타게 되는 상태가 바로 손풍금기능과 숙련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이다.

기능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능은 우선 일정한 분야의 활동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학습활동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높은 지능과 함께 읽고 쓰고 말하며 콤퓨터를 능숙히 다루는 기능들이 숙련되여야 한다. 학습활동에서 능숙한 콤퓨터기능을 가지게 되면 남보다 짧은 시간동안에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정보들을 수집하여 리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활동에서도 기능이 높을수록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배가의 일능률을 내여 높은 실적을 내게 된다.

기능은 또한 훌륭한 재능을 꽃피울수 있는 중요한 밑천으로 된다.

물론 재능이 소질적바탕에 기초하여 형성되지만 보다 중요한것은 반복되는 훈련과정에 형성된다.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비롯한 악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이 점차 재능있는 연주가, 작곡가로 된다든가, 글씨를 잘 쓰는 학생이 점차 재능있는 서예가로 되는 실례는 다 기능과 숙련이 재능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기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기능을 키우려면 첫째로, 일정한 대상의 구조와 작용원리, 동작방식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소유해야 한다.

녀학생들이 재봉기를 다루는 기능을 키우려면 먼저 재봉기의 구조와 작용원리, 다루기동작방식에 대한 지식들을 정확히 소유하여야 한다.

둘째로, 분동작들을 하나하나 익히고 그에 기초하여 매 동작들을 련결시키면서 완성된 동작을 수행해보아야 한다.

어떤 활동분야에 대한 기능은 처음부터 완성된 동작으로 수행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한동작한동작 익히고 점차 그것들을 하나로 련결시키면서 하나의 옹근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손풍금다루기기능을 키우려면 처음에 개별적인 동작들인 오른손짚기, 왼손짚기 등을 따로따로 익힌 다음 점차 두 동작을 하나로 련결시키면서 하나의 완결된 동작으로 연주하여야 한다.

셋째로, 기능이 형성된 다음에는 련습을 통하여 숙련시켜야 한다.

련습은 숙련형성의 특성과 합법칙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우선 련습에서 체계성과 순차성을 지켜야 한다. 즉 단순한 동작으로부터 복잡한 동작에로, 쉬운 동작으로부터 어려운 동작에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련습하여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정확하게, 천천히 진행하고 점차 숙련되는데 따라 련습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또한 동작들가운데서 자주 불완전하게 나타나는 동작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돌려 거기에 힘을 넣어야 한다.

문제

1. 기능과 지능의 차이점에 대하여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의 경우들에서 기능상태를 표현한 경우들을 찾아내고 그 근거를 말해보시오.
   ① 인철이는 그 어떤 수학문제도 머리를 써서 꽉꽉 풀어내군한다.
   ② 영숙이는 2차방정식풀이 같은것은 손쉽게 해제낀다.
   ③ 순호는 동무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의 얼굴표정을 보고도 그가 지금 어떤 심리상태에 있는가 하는것을 남보다 잘 알아낸다.
   ④ 정림이는 동무들과의 교제력이 높다.
3. 탁구치기기능을 키우자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4. 자기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3. 재 능

재능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학생들이 가지고있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3살, 5살에 벌써 세상을 놀래우는 피아노연주가, 바둑선수로, 학생들이 20대에 박사로 이름 떨칠수 있은것은 바로 그들이 예술과 체육, 과학연구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둘수 있는

뛰여난 능력들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재능이란 일정한 활동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여러 능력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여 이루어진 뛰여난 능력을 말한다.

재능은 우선 여러 능력들의 조화로운 결합이다.

2005년 4월 우크라이나의 끼예브에서 진행된 《21세기 예술》국제콩클 피아노연주에서 우리 나라의 한 학생이 1등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그는 어떤 남다른 피아노연주능력을 가지고있었기에 그런 놀라운 성과를 거둘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누구도 따를수 없는 뛰여난 음감 및 리듬, 화음감수력과 청각적기억력, 예술적형상능력과 숙련된 피아노연주기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되여있었다.

만일 그가 어느 한두가지 능력만을 가졌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을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학적재능은 공간표상능력, 량적관계분석능력, 거꿀사고능력, 변형능력 등의 조화로운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재능은 또한 보통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뛰여난 능력이다.

손풍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여 다 재능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손풍금을 잘 타고 노래를 잘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수준을 넘어선 뛰여난 손풍금연주가, 가수를 두고 재능가라고 말한다.

재능은 어떤 요인들에 의하여 형성되는가

재능은 우선 소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소질은 일정한 활동을 잘할수 있게 하여주는 뇌수와 육체적기관들의 구조적 및 기능적특성이다.

그 어떤 활동을 하자면 육체적기관들이 참가하여야 한다.

활동에서 어느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재능이 발전할수 있는가 하는것이 정해진다.

미술에서는 시각기관, 음악에서는 청각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의 운동능력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시각기관이 발달하지 못하면 그림을 잘 그릴수 없고 청각기관이 발달하지 못하면 악기를 잘 연주할수 없다.

그리고 수학이나 물리, 화학, 생물학과 같은 과학분야의 특출한 재능가가 되자면 뛰여난 관찰력과 사고력, 기억력, 상상력을 발휘할수 있는 대뇌피질의 기능이 남달리 발달되여야 한다.

재능은 또한 교육과 실천활동과정에 키워진다.

아무리 뛰여난 소질을 가지고있어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실천활동이 없이는 그것이 재능으로 꽃펴날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수 있는 교육제도가 법적으로 담보되여있고 국가가 학생들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키워주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과 기술, 예술과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세계를 놀래우는 뛰여난 능력을 가진 재능가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재능은 과학탐구와 실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능은 우선 세계적인 발명과 발견을 할수 있게 한다.

과학과 기술분야의 뛰여난 재능가들이 세계를 놀래우는 발명과 발견을 한다. 따라서 뛰여난 재능가, 수재를 나라의 재부라고 한다.

물론 꾸준하고 인내성있는 노력가, 정열가가 성공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정열도 재능과 결합될 때 더욱 빛이 나게 된다.

실례로 20대, 30대에 벌써 박사가 되여 최첨단과학과 기술을 개척하고 세계적인 발명, 발견자가 되여 이름을 떨치고있는 청년지식인들은 하나와 같이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정열과 함께 일정한 분야의 특이한 재능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다.

재능은 또한 예술과 체육분야들에서도 이름을 떨칠수 있는 훌륭한 성과들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어려서부터 음악적재능을 가진 어린이는 벌써 10대, 20대에 세계콩클경연에서 우승하거나 명작까지 창작하게 되며 체육적재능을

가진 어린이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세계무대에서 체조의 왕으로까지 불리울수 있다.

그것은 재능이 보통정도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수준에서 발휘되도록 담보해주는 여러가지 조화로운 능력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있기때문이다.

이처럼 재능은 과학과 기술분야만이 아니라 체육과 음악 등 모든 사회활동분야들에서 특출한 성과를 달성할수 있게 하여준다.

재능을 발전시키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재능을 발전시키자면 첫째로, 자기가 어떤 소질을 가지고있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재능의 발전은 소질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것만큼 매 사람마다 고유한 소질적특성이 무엇인가를 제때에 찾아내야 한다.

소질은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아이때부터 목소리색갈이 특이하고 유순하며 어떤 사람은 절대음감이 예민하고 손가락이 길며 어떤 사람은 남보다 무엇이나 빨리 기억하고 문제포착력이 강하다.

여기에서 목소리색갈이 특이하고 유순한 사람은 재능있는 가수로 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있다고 하고 절대음감이 예민하고 손가락이 긴 사람은 피아노 또는 바이올린연주가로 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있다고 하며 남보다 빨리 기억하고 창조적사고력이 높은 사람은 유명한 학자가 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학생들은 자기에게 있는 소질을 정확히 찾아내여 그 방향으로 자기의 재능을 꽃피워나가야 한다.

만일 소질적특성을 무시하고 그와 다른 방향에서 재능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남보다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도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떤 분야의 재능가가 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저절로 재능가로 되지 않는다.

매 분야마다 자기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법칙이 작용하는것만

큼 교육을 통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방법론을 소유하고 그에 기초하여 실천활동을 벌려나가야 재능을 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수재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수립되여 수재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소학교, 중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의 소질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재능교육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그리하여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혜택아래 강성대국건설에 한몫 단단히 이바지할수 있는 쓸모있는 인재, 재능가들이 수많이 배출되고있다.

셋째로, 자신의 정열적인 노력이 안받침되여야 한다.

재능도 어디까지나 지능 및 기능형성과정에 얻어지는 능력이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정도의 지능과 기능이 아니라 련습과 노력의 결과에 얻어지게 되는 매우 조화롭게 발달된 지능과 기능이다.

그러므로 지능과 기능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에 토대하여 부단히 련습해나가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탁구녀왕, 마라손녀왕, 체조녀왕 등으로 이름을 떨친 체육명수, 체육재능가들의 평시훈련과정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타는 노력, 고심어린 구슬땀이 스며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명언

《재능은 그 어떤 물질적재부보다도 더 귀중한 밑천이다.》
《재능보다 더 귀중한것은 정열적인 노력이다.》

문제

1. 재능이 지능 또는 기능과 어떻게 다른가를 실례들어 설명하시오.
2. 다음 글들에서 누가 어떤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는가를 지적하고 그 근거를 밝히시오.

① 문철이는 특수한 수학적변형능력, 수학적거꿀능력, 응용능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된 능력을 가지고있다.

② 서옥이는 특수한 절대감수력, 차이감수력, 선률기억 및 상상력, 리듬감수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된 능력을 가지고있다.

③ 별이는 특수한 색갈구별능력, 색조화능력, 비례판단능력, 조형적상상력 등이 조화롭게 결합된 능력을 가지고있다.

3. 과학과 기술, 체육, 미술, 예술분야에서 이름난 우리 나라 재능가들을 2명이상씩 지적해보시오.

4. 자기에게는 어떤 분야의 재능가로 발전할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소질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과외읽기

축복받은 꼬마재간둥이들

재간둥이들을 많이 키워 사랑의 요람, 자랑많은 유치원으로 불리우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우리 나라 학교전교육과 조기수재교육에서 단연 앞장서나가고있는 자랑도 많아 온 나라에 이름난 이 유치원에 또다시 경사가 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이 유치원의 구대홍, 김혁일어린이와 강순희, 리순정교양원을 만나주시고 은정어린 사랑을 베풀어주신것이다.

그날은 주체95(2006)년 1월 초순 어느날이였다.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꼬마재간둥이들을 만나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대홍어린이가 《대원수님 그립습니다.》를 정자체로 쓰는것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다가 미술대학 전문부 학생보다 낫다고 칭찬해주시였으며 흘림체로 《백두산호랑이》를 단숨에 썼을 때는 정말 잘 썼다고 특히 《랑》자를 잘 썼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리고 호랑이그림을 절반밖에 그리지 못해 조바심을 안고있는 김혁일어린이의 동심을 헤아려보시고는 친아버지의 자애로운 심정으로 네가 다 그리지 않아도 잘 그

리는줄 안다고 하시면서 정말 잘한다고 유치원꼬마의 그림솜씨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리고 앞으로 인민군대서예가, 인민군대화가가 되겠다는 꼬마들의 결의를 들으시고는 너무도 만족하시여 그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고 갖가지 붓들과 각종 규격의 그림종이와 연필 등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을 가슴 한가득 안겨주시였다.

심리학초보(중학교 제5학년용)

2판

집 필 교수 박사 강동춘, 장성옥, 부교수 김성철
심 사 심의위원회
편 집 최동녀
콤퓨터편성 배송림
장 정 류명심
교 정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1판발행 주체98(2009)년 10월 12일
2판인쇄 주체100(2011)년 월 일
2판발행 주체100(2011)년 월 일

교-12-보-680

값 원